Style 조선일보
DECEMBER 2022
vol.246

PIAGET

SUBLIMAGE
L'EXTRAIT

단 한 방울 안에 담긴 수블리마지의 놀라운 힘

수블리마지는 피부의 활력을 깨우는 바닐라 플래니폴리아 성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샤넬 연구소가 엄선한 오랜 역사를 지닌 식물로, 뛰어난 스킨케어 효능이 돋보이는 히말라야산 스웨티아가 풍부하게 담겨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효과를 선사합니다. 프리미엄 고농축 리페어 오일 세럼, 수블리마지 렉스트레로 세럼처럼 강력한 리페어 효과와 감각적인 스킨케어를 동시에 느껴보세요. 단 한 방울만으로도 탁월한 성분의 힘이 온전히 전해집니다. 사용 직후 피부에 건강한 광채와 활력이 되살아나 더욱 탄력 있어 보입니다. 사용할수록 매끈하고 부드러워진 피부는 숭고하게 빛나며 탄탄해집니다.

CHANEL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38

LIVE THE JOY

FRED

FORCE 10 COLLECTION

WWW.POIRET.COM SHINSEGAE MAIN | SHINSEGAE GANGNAM | SHINSEGAE CENTUM CITY

POIRET

SPEEDMASTER ‘57
Co-Axial Master Chronometer

A CLASSIC ICON RETURNS

독특한 "브로드 애로우" 핸즈와 베젤에 타키미터 스케일을 탑재한 스피드마스터 '57은 1957년 트랙 위를 달리는 레이싱 카 드라이버와 엔지니어를 위해 출시된 오리지널 스피드마스터 디자인을 상징합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스피드마스터 '57 컬렉션은 한층 더 슬림해진 측면과 상징적인 요소를 더한 심플한 스타일, 수동 와인딩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로 선보입니다. 스피드마스터 '57을 착용한 배우 현빈은 오리지널 스피드마스터 라인의 새로운 진화를 보여줍니다.

OMEGA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스위스시계 강남점 로열워치 동탄점 로열워치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바젤워치 하남점 타임즈와치 광주점 세종이십일 센텀시티점 드로어써클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지노시계 **노블워치** 논현 **현대백화점** 신촌점 해시계 킨텍스점 지노물산 울산점 바젤시계

omegawatches.com

1백48년의 역사를 자닌 피아제는 2022년 12월 메종의 미학을 고스란히 담아낸 연말 기프트를 제안한다. 불규칙한 라인으로 질감을 살려 눈부신 광채를 발하는 화려한 글서핑 기술인 팰리스 데코를 아이코닉 컬렉션에 접목한 포제션 팰리스 데코 링이 그 주인공. 18K 핑크 골드와 44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매치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문의 1668-1874

22 **NEW FESTIVE VIBES**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동시대 미술을 품는 '글로벌 행사'를 지향하는 축제가 열렸다.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 2022. 아시아 지역의 문화 예술 허브를 둘러싼 역학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더 궁금해지게 만든 현장이었다.

24 **JUST AS NATURE DOES**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유명한 루이 비통의 '아티카퓌신' 컬렉션에 참여하면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력을 보탠 박서보 화백을 만나봤다.

26 **TIMELESS MODERNITY** 지난 10월, 완벽하게 레노베이션된 파리의 뤼 드 라 뻬 13번지가 소중한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했다.

28 **HIGH SHINE**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한 다이아몬드 워치.

29 **PERFECT GAME** 오메가는 제임스 본드 탄생 60주년을 맞이해 런던에서 블랙 타이 이벤트를 개최했다.

30 **STEP INTO WINTER** 최근 패션 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륨감 있고 청키한 스타일의 힙스터 부츠.

31 **PADDING LANDING** 패딩의 계절이 돌아왔다.

32 **GREAT STARRY AFFAIR** 달빛에 숨 죽이고 밤하늘의 별에 매료되었던 2023 구찌 크루즈 컬렉션 현지 리포트.

34 **HOLIDAY WISH LIST** 소중한 이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유종의 미를 장식할 연말. 아름다움에 특별함과 센스를 담아 더욱 완벽해진 홀리데이 기프트 셀렉션.

60 **SHARE THE ROMANCE** 행복한 홀리데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피아제의 스페셜 기프트.

62 **LOVELY HOLIDAY** 피아제가 2022년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새로운 캠페인을 공개했다.

63 **HOLIDAY DREAM** 샤넬 하우스의 정신이 온전하게 깃든 N°5 향수와 더욱 특별해진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바디 오일.

64 **ELEGANT REEL** 이탈리아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우아한 주얼리를 제작하는 다미아니의 새로운 벨 에포크 릴 컬렉션.

65 **THE EXTRAORDINARY EXPEDITION** 몽클레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특별한 전시.

66 **A TRUE URBAN SANCTUARY** 자연 속 힐링'을 추구하는 럭셔리 리조트의 상징인 아만이 도쿄에서도 건조하기 짝이 없는 금융가의 마천루 숲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68 **SPECIAL FOR YOU**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뷰티 브랜드의 홀리데이 에디션 아이템이 대거 출시된다.

69 **EDITOR'S PICK** 눈부신 한 해의 마무리를 빛내줄 12월의 뷰티템을 엄선했다.

Style 조선일보

Issue.246 December 2022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라윤**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l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권신희 **분해·제판** | **라온 인쇄** | **티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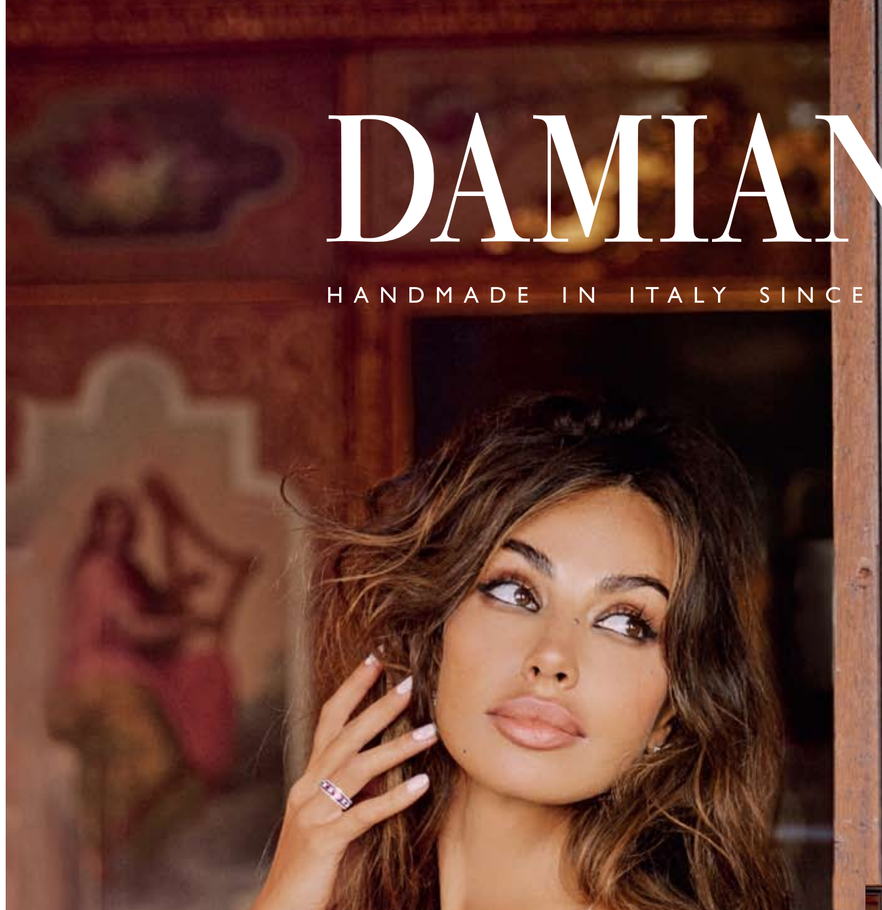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m

DAMIANI

HANDMADE IN ITALY SINCE 1924



BELLE EPOQUE COLLECTION
DAMIANI.COM

롯데 에비뉴엘 본점 02 2118 6131 •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02 3213 2141 • 롯데 부산점 051 810 4165 • 롯데 동탄점 031 8036 3619
신세계 본점 02 310 1533 • 신세계 강남점 02 599 1924 • 신세계 대구점 053 744 1924 • 신세계 대전 아트앤사이언스점 042 607 8110 • 신세계 경기점 031 695 2049
현대 본점 02 515 1924 • 현대 판교점 031 5170 1179 • 현대 대구점 053 245 2294

DEEP IN COLORS

달에서 영감받은 샤넬의 홀리데이 메이크업 컬렉션.
4구로 이뤄진 레 꺄트르 옹브르는 샤넬 하우스의
상징적인 N°5 보틀과 로고가 돋보인다.
빛과 그림의 절묘한 대비 속에서 매혹적인 음영의
조화로움을 만날 수 있다. 반짝이는 브론즈 스파클
새틴 파우더는 달 표면처럼 표현하고 N°5 실루엣을
새긴 것이 특징. 얼굴의 윤곽을 입체적으로 연출하고
진줏빛 광채를 선사한다. (왼쪽부터) 레 꺄트르
옹브르 937 옹브르 드 룬 2g 8만8천원,
에끌라 루네이르 오르 로즈 16g 9만2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NECK LOVE

멋진 목에 개성 있는 포인트를 더할 초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채로운 리본 모양의 메탈과 스트라스 소재에 키프 스킨 스트랩을
매치한 초커 네크리스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브라스에 크리스탈로 장식한 로고 포인트의 초커
가격 미정 **돌체앤드가바나.** 문의 02-3442-6888. 오버사이즈 크리스털
장식이 돋보이는 화려한 스타일의 니파 가죽 초커 76만원 **마우미우.**
문의 02-3218-5331 포토그래퍼 **최만영** 에디터 **성정민** 어시스턴트 **신정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여행자의 시간

전 세계를 누비며 여행하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삶이다. 이러한 여행자의 소망을 그대로 반영한
워치가 에르메스의 아쏘다. 1978년 앙리 도리니가
디자인한 이 워치는 새로운 스타일과 여행 정신을
불러일으킨다. 에르메스만을 위해 개발한
트래블링 타임 메커니즘은 기존의 클래식한
고급 시계 컴플리케이션을 재해석했으며,
무려 24개의 타임존을 디스크 타입
디스플레이로 제공한다.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디스플레이를 갖춘 건
물론이다. 제롬 콜리아르(Jérôme
Colliard)가 상상한 플라니스페르
덩 몽드 에퀘스트르(Planisphère
d'un Monde Equestre)
실크 스카프처럼 환상적인 지도
위로 서브 다이얼이 회전하는
모습은 마치 세계 여행자가 된 듯
경이롭기까지 하다. 모바일 카운터와
12시 방향의 홈타임 인디케이터는
1백22개 부속품으로 이뤄진 두께 4.4mm의
모듈로 구동하며 에르메스의 기계식 셀프
와인딩 H1837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케이스
지름 41mm의 블랙, 케이스 지름 38mm의 블루
다이얼과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 버전을 제공한다.
문의 02-542-6622

PEACE of SCENTS

공간의 무드를 연말 감성으로 바꿔줄 작지만 훌륭한 오브제.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딥티크 캔들 시트로넬** 시트러스한 레몬그라스와 버베나,
네롤리, 오렌지 블러섬까지. 상쾌하고 유쾌한 향이 만나 신선함을 전해줄 셔며 에센셜 컬렉션 캔들 190g 9만1천원. 문의 02-3446-7494
디에스앤더가 블랙펄스트 하이랜드 퍼퓸드 캔들 자욱한 안개와 구불구불한 언덕이 인상적인 스코틀랜드에서의 아침 식사를 떠올리게 하는 고요하고
평온한 발향이 특징이다. 180g 8만원. 문의 02-6905-3353 **펜할리곤스 클래식 캔들 콩간로즈** 강렬한 레드 와인 컬러의 패키지가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캔들로, 화려한 터키산 장미와 사프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잔향이 일품이다. 200g 11만2천5백원. 문의 080-363-5454 **리부르켓
센트드 캔들 하노키** 너트메그 향과 삼나무의 강한 향을 베이스로 집중력을 높이고 유향과 페퍼 향을 지녀 감각을 평온하게 만드는 캔들 260g
8만5천원. 포토그래퍼 **최만영** 에디터 **성정민**

Publicité Et Nous

Time
travels the world.

ARCEAU LE TEMPS VOYAGEUR

TIME, A HERMÈS OBJECT.

HERMÈS
PARIS

SIMPLY ELEGANT

핑크 골드와 머더오브펄로 재해석한 피아제의 포제션 컬렉션. 최적화는 모티브를 담은 경쾌한 디자인 코드가 돋보인다. 왼쪽부터 0.89캐럿의 머더오브펄 카보숑 주변으로 총 0.28캐럿 2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핑크 골드의 포제션 머더오브펄 팬던트 6백30만원, 2개의 머더오브펄 카보숑 장식을 0.2캐럿 2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감싸 유려한 멋을 뽐내는 포제션 머더오브펄 오픈 링 4백57만원. 문의 1688-1874

자연스럽게 빛나는

촙고 건조한 날씨에도 끄떡없이 촉촉하고 빛나는 피부를 연출해주는 무적의 파운데이션.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워글래스 앰비언트 소프트 글로우 파운데이션** 적은 양으로도 피부를 완벽하게 커버하는 것은 물론, 속은 촉촉하게 마무리되어 은은한 광채 피부를 완성한다. 30ml 7만9천원. 문의 1644-4490 **스쿠 더 리퀴드 파운데이션** 피부를 윤기 있고 화사하게 만드는 특별한 플루이드 피그먼트로 피부에 균일하게 도포되어 어느 각도에서든 뭉침 없이 매끈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30ml 1만8천원대. 문의 02-6905-3369 **플레드로 보떼 더 파운데이션** 브랜드의 아이코닉 아이템인 라 크렘므의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편안하게 하면서도 건강한 광채를 끌어올려 자연스럽고 빛나는 피부를 연출한다. 28ml 35만원대. 문의 080-564-7700 포토그래퍼 **최만영** 에디터 **성정민** 어시스턴트 **신정임**

위대한 공예와 컬러

다채로운 스타일로 공예와 컬러를 예찬하는 로에베. 이번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해 중국의 단색 도자기에서 영감받은 10가지 컬러의 차이니즈 모노크롬 컬렉션 핸드백을 선보인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개발된 정교한 유약 작업과 도자기를 불에 굽는 소성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도자기는 정교하면서도 절제된 작품으로 칭송받는다. 이토록 유서 깊은 컬러들을 입은 로에베의 아이코닉한 아이템이라니, 소장 가치가 충분하다. 문의 02-6905-3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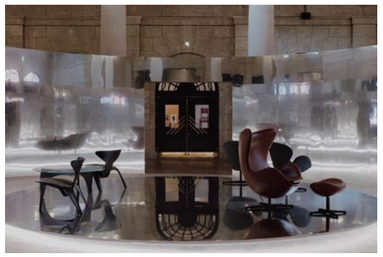
CHARMING DIAMOND

액세서리나 브레이슬릿으로도 손색없는 다이아몬드 장식 워치. 특히 루이 비통의 상징적인 로고인 모노그램 플라워를 다이아몬드로 표현해 블랙 래커 다이얼 위에서 화려하게 반짝이는 이 워치는 주얼리나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28mm와 33mm, 두 가지 케이스 사이즈 중 선택 가능하며, 베젤에도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놓치지 않았다.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루이 비통만의 스트랩 교체 시스템으로 1백 가지 이상의 다양한 스트랩을 바꿔가며 무한정으로 착용 가능하다. 문의 02-3432-1854

for THE MOUNTAIN

몽블랑 하면 산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번 마이스터스틱 홀리데이 캡슐 컬렉션은 브랜드의 기원이자 연결점인 몽블랑 마운틴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 콤팩트한 사이즈로 필요한 용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 휴대성이 돋보인다. 그뿐 아니라 몽블랑의 스키 마스코트가 몽블랑 만년필과 함께하는 모습의 디자인 또한 위트 있다. 마이스터스틱 홀리데이 캡슐 컬렉션 파우치 1백17만원. 문의 1877-5408

SHAPING THE EXTRAORDINARY



올해 150돌을 맞이한 덴마크 리빙 브랜드 프리츠 한센의 주요 컬렉션이 한국의 공예 · 디자인과 어우러진 전시가 디자인 애호가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브랜드와 손잡고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이 공동 주관한 〈프리츠 한센 1백50주년 기념 전시 – Shaping the Extraordinary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문화역서울284에서 진행 중이다. 에그 체어, 시리즈 7 등으로 이미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프리츠 한센의 1872년 탄생부터 그동안의 역사를 수놓은 디자인 아이콘 제품과 더불어 서신정(채상장), 정관채(염색장), 최정은(자수장), 정수희(칠장) 등 4명의 무형문화재 공예 장인과 르동일(스튜디오언더볼), 최형문(밀리언로지즈), 이석우(SWNA) 등 3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한 '코리아 프로젝트'도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예를 들어 정관채 염색장의 솜씨로 아르네 아콥센의 에그 체어를 쪽빛 무명으로 감싸는 식으로 장인과 프리츠 한센이 특별한 협업 컬렉션을 각자 내놓았고, 디자이너들은 저마다의 시각과 방식으로 프리츠 한센의 아름다움을 해석한 조명(르동일), 화병(최형문), 테이블웨어(이석우)를 선보였다. 문화역서울284에서 12월 11일까지.

Publicité EtNous

Time
travels the world.

ARCEAU LE TEMPS VOYAGEUR

TIME, A HERMÈS OBJECT.

HERMÈS
PARIS

블랙 스피넬과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를 더한 옐로 골드 소재의 옴브르 펜던트 네크리스 2916천5백40만원대 **프레드.**

찰리 별 디자인 요소와 더해은 컬러감이 화려함을 더해주는 로즈 드 방 이어링 가격 미정 **디올 파인 주얼리.**

천연 스웨이드 소재에 매혹적인 뱀 머리 자석 잠금장치를 장착한 숄더백 세르펜티 포에버 미니 크로스 백 4백55만원 **불가리.**

네크라인과 소매를 프릴로 장식해 화려함을 부여한 스팽글 소재의 드레스 5백38만원 **블루마린.**

저자극성 메탈 소재에 크리스털과 비즈 장식을 더한 RV 부케 스트라스 펄 브레이슬릿 70만원 **로저 비비에.**

반짝이는 발목 스트랩이 여성스러운 매력을 연출하는 코어스 글리터 패브릭 소재의 슈즈 새다 100 1백62만원 **지미추.**

로즈 골드 소재 케이스에 0.196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팔찌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워치.**

for her Selection

빛나는 주얼리와 눈부신 글리터 아이템까지. 연말 이브닝 파티에서 당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아이템만 엄선했다. photographed by **kim sa yun**

크리스털과 비즈를 가미한 RV 부케 스트라스 펄 이어링 1백59만원 **로저 비비에.**

시원스러운 리본 장식이 트렌디한 샌들 슬랙스 1백50만원 **미우미우.**

아이코닉한 트위드 소재의 숄더백 CHANEL 22 스몰 핸드백 가격 미정 **샤넬.**

메이로즈, 재스민, 앰버우드 노트를 중심으로 한 N°5 오 드 퍼퓸 100ml 24만2천원 **샤넬 뷰티.**

반짝이는 스팽글에 플라워 무늬로 로맨틱함을 부각한 뱅뒤 그물 톱 가격 미정 **아뜨.**

플레임 스타일 다이아몬드를 중심에 세팅한 스노우 플레이크 링 1억9백만원 **반클리프 아펠.**

블루마린 02-6905-3447
프레드 070-4732-0479
불가리 02-2056-0170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지미추 070-4099-4121
에르메스 워치 02-542-6622
MCM 1600-1976
펜디 031-5174-7208
샤넬 080-805-9628
미우미우 02-541-7443
마쥬 070-4185-2913
샤넬 뷰티 080-805-9638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디올 파인 주얼리 02-3480-0104

THE NUDO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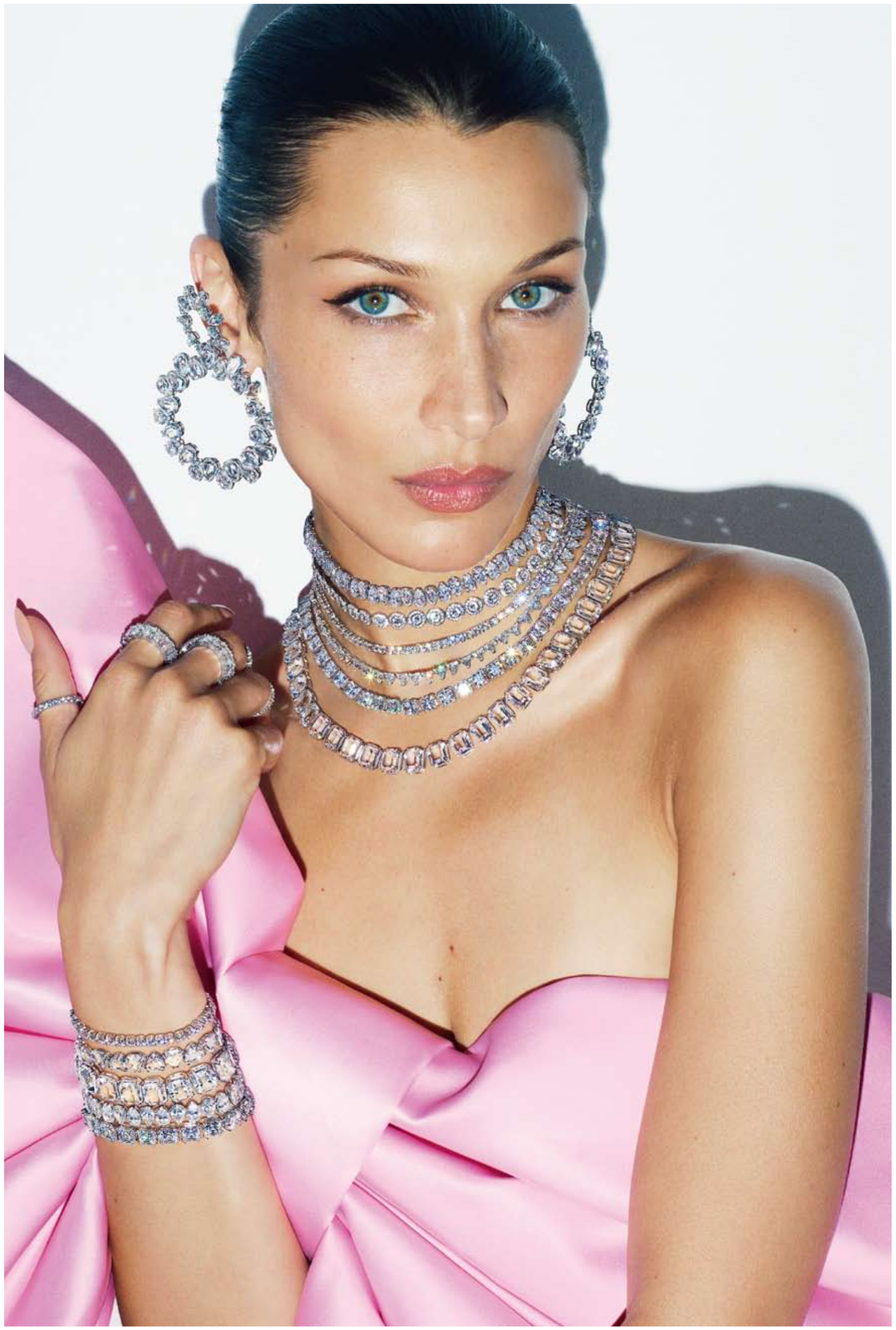
DESIGNED IN MILAN

PIAZZA VI FEBBRAIO
RENATO FERRARI

Pomellato

MILANO 1967

CLIENT SERVICE CENTER · 02 3143 9486



OPEN THE WO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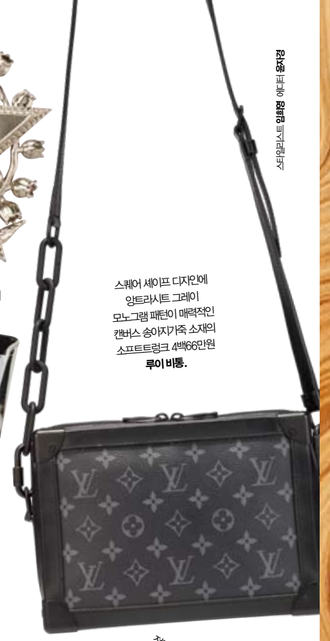
SWAROVSKI

땡한 블루 컬러와 장미 프린트가 돋보이는 로즈 그래픽의 실크 셔츠 가격 미정 **에트로.**

벨벳 소재로 클래식함에 패셔너블함을 더한 맥시 보우타이 50만원대 **펜디.**

심플한 실버링이 돋보이는 메탈 소재의 코인 디테일 커프 가격 미정 **생 로랑.**

실버 피니시의 브라스와 마블 스톤 소재의 CD STAR 브로치 가격 미정 **디올 맨.**



스웨어 세이프 디자인에 인트라시트 그레이 모노그램 패턴이 매력적인 캔버스 송아지가죽 소재의 소프트트렁크 4백66만원 **루이 비통.**

메탈릭한 와인이 전체적인 룩에 키포인트가 되어줄 크루저 뮬시 부츠 가격 미정 **셀린느.**

for him Selection

컬러풀한 패션 아이템과 최고 품질의 하이엔드 위스키까지, 홀리데이 무드를 한껏 업시켜줄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sa yun**

스틸 그레이 컬러 케이스와 VELCRO© 스트랩이 조화를 이루는 미션 투 더 문 33만원대. **오메가 X 스와치.**

독특한 마블 메틸이 선글라스 32만원 **버버리 by 에브로 옵스티카.**

차분한 광택감으로 고급스러움을 선사하는 벨벳 소재의 미드나잇 블루 버스코스 플루이드 벨벳 쿠퍼 비크 리펠 라펠입 재킷 가격 미정 **톰 포드.**

골드 컬러와 브랜드의 시그너처 로고의 조합이 클래식한 멋을 주는 DG 로고 커프링크 69만원 **돌체앤가바나.**

심플하면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돋보이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디테일의 에센셜 팔찌. **불가리.**

잘 익은 배와 블러드 오렌지, 꿀의 깊은 달콤함과 따뜻한 몽미의 계피, 생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로얄살루트 30년 500ml 가격 미정 **로얄살루트 by 페르노리카 코리아.**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재킷에 멋스러운 포인트가 되어줄 100% 실크 소재의 블루 실크 포켓 스퀘어 가격 미정 **톰 포드.**

버클에 심플하게 디자인한 로고를 가미한 브이 로고 벨트 65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청키한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벨벳과 스웨이드 소재의 슈즈 마르티 리버스 1백만원 **지미추.**

에트로 02-3446-1969 **펜디** 02-514-0652 **디올 맨** 02-3480-0104 **루이비통** 02-3432-1854 **생 로랑** 02-6105-2228 **셀린느** 02-549-6631 **오메가X스와치** 080-559-1472 **에실로 룩소티카** 02-501-4436 **톰 포드** 02-6905-3534 **돌체앤가바나** 02-3442-6888 **불가리** 02-2056-0170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3 **지미추** 070-4099-4121 **페르노리카 코리아** 02-3466-5700

아트 위크 도쿄
(Art Week Tokyo) 2022

New Festive Vibes

1

디지털 시대의 속도가 팬데믹을 계기로 월등히 빨라졌지만, 투덜거리면서도 적응력을 발휘하는 지구인의 모습을 보면서 설마 '체험 경제의 논리' 따위는 통하지 않는 걸까 하는 우려가 싹틀 만도 했다. 처음에는 '줌' 같은 방식의 온라인 소통을 낯설어했지만 이제는 대면 수업을 받으러 학교에 가거나 물리적인 회의에 참석하는 게 귀찮다는 이들이 부지기수이니 말이다. 물론 천만의 말씀이었다. 국경을 잇는 하늘길이 보다 자유롭게 펼쳐지면서 여행은 다시 꽃피우고 있고, 몸소 '발품'을 팔아 생생한 '체험'을 누리길 갈구하는 수요가 치솟고 있다. 도시마다 전시, 축제 등 몰입적인 경험을 가능케 하는 '공간형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고 말이다. 백신을 접종한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진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도 동시대 미술을 품는 '글로벌 행사'를 지향하는 축제가 열렸다. 아트 위크 도쿄 (Art Week Tokyo, AWT) 2022.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아시아 지역의 문화 예술 허브를 둘러싼 역학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더 궁금해지게 만든 현장이었다.

2

도쿄는 도시 브랜딩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도시가 아니다. 팬데믹으로 맥없이 닫혔던 빗장이 서서히 풀리면서 전 세계에서 다시 이 도시로 향해 몰려드는 방문객 행렬과 더불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항공권과 호텔 가격만 봐도 알 수 있듯 말이다. 21세기를 주도한다고 일컬어지는 '소프트 파워'의 지위를 확실히 누려온 아시아의 손꼽히는 메트로폴리스가 아니던가. 이 같은 브랜드 파워는 건축, 조경, 미식, 문화 예술, 쇼핑 등을 아우르는 풍부한 하드웨어와 콘텐츠가 두루 뒷받침하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말이다. 하지만 '현대미술'을 따로 끄집어낸다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동시대 미술을 둘러싼 생태계의 다채로운 동력'이라는 표현이 나을 수 있겠다. 다수의 다국적 컬렉터가 일부러 찾아올 만큼 활력을 내뿜는 구심점이 될 만한 플랫폼의 존재감이 도시의 명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물론 도쿄에는 근현대를 다루는 빼어난 미술관도 많고, 세계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아티스트들도 있다. 그러나 다국적 갤러리들의 진출 상황이나 글로벌 아트 페어 같은 상업 인프라 혹은 신진 · 중견 작가의 균형 있는 브랜딩 등 아트 신 자체의 활기는 적어도 고무적이지는 않다. 팬데믹 이전에 '창조 도시'나 '문화 예술 허브'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아시아 지역의 경쟁 구도를 논할 때 도쿄라는 이름이 자주 거명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배경에서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의 출현은 흥미롭게 다가온다.

'도시 기행' 형식을 빌린 축제형 쇼케이스

아트 위크 도쿄 소식을 접했을 때 처음 떠올린 건 '어째서 아트 페어가 아니지?'라는 물음이었다. 지난가을 우리나라 문화 예술계를 한껏 달군 프리즈 · 키아프(Frieze+Kiaf)의 첫 공동 개최를 계기로 미술은 물론 '아트 페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고, 더불어 글로벌 아트 페어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고 있다. 아트 페어를 다니는 미술 애호가나 관계자는 1월에는 타이베이 당다이 페어, 3월은 아트 바젤 홍콩, 10월은 프리즈 런던 하는 식으로 캘린더에 날짜를 채우기에 바쁘다. 미술을 매개로 지구촌 곳곳의 도시를 여행하는 셈이다. 미술품을 거래하는 상업 플랫폼인 아트 페어와 달리 2~3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같은 현대미술 담론의 장이자 글로벌 축제인 대형 미술 행사도 있다. 아트 위크 도쿄는 매해 11월에 '미술 주간'을 전개하는 축제형 콘텐츠를 택했다. 관람하다가 원한다면 갤러리와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지만 작품을 한데 모아놓고 매매를 하는 '장터'는 아니라 다분히 대중 친화적인 프로그램이다. 당연히 VIP 프로그램도 따로 꾸려지기는 하지만, 누구나 'AWT PASS'라는 모바일 앱을 내려받아 구역별로 정리된 지도를 보고 자신만의 노선을 정한 다음, AWT 로고가 새겨진 전용 버스를 타고 여러 아트 스페이스를 마음껏 돌아다니고 입장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물론 도쿄 거주자처럼 길을 잘 안다면 지하철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지난해 '소트프 론칭' 형태로 첫선을 보였는데, 내국인 대상으로만 2만 명의 참가를 끌어모으는 호응을 얻은 아트 위크 도쿄는 올해는 한층 체급을 키운 '확장형 버전'으로 다국적 손님을 맞이했다(11월 3일부터 6일의 공식 일정). 지난해에 이은 공적 지원(정부와 도쿄 도청)을 등에 업고 갤러리와 아트 스페이스, 공공 미술관을 아우르는 미술계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냈다. 도쿄 국립신미술관,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같은 유수의 공공 미술관, 모리 아트 센터, 시세이도 갤러리, 에르메스의 도쿄 전시 공간인 르 포럼 등 사립 미술관과 아트 센터, 그리고 일본에 현대미술을 소개한 선구자격인 도쿄 갤러리 + BTAP를 비롯해 무진토, 갤러리 페로탕, 블럼 앤드 포, 스카이더배스하우스, 카이카이키키 같은 갤러리 등 51개 기관과 조직이 다채로운 전시와 행사를 꾸려 힘을 보탰다. 아트 스페이스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도쿄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도시 탐험'이 저절로 이뤄지는 게 투어의 묘미다. 예컨대 올해 개관 15주년을 맞이한 도쿄 국립신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진행했던 한국의 현대미술 거장 이우환의 소속 갤러리이기도 한 스카이더배스하우스는 도쿄 다이토구에 커다란 목욕탕을 개조한 전시 공간을 두고 있고, 개념적인 작업을 많이 선보이는 갤러리인 무진토 프로덕션은 스미다구 고토바시의 목재 건물에서 전시를 꾸리는데, 갤러리 덕분에 지역색을 물씬 풍기는 아기자기한 매력의 동네를 알게 되는 행운을 누리는 느낌이다.

일본의 예술 지평을 넓히고 싶었던 갤러리스트의 도전

아트 위크 도쿄의 공동 창립자이자 디렉터로 다케 니나가와 갤러리를 대표하는 니나가와 아쓰코(Atsuko Ninagawa)는 "지난해 봄, 이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여러 지역의 공간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부터 짜봤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동시대 미술에 대한 대중의 지평을 넓히고 일본의 미술 콘텐츠를 해외에 더 활발히 알린다는 취지에 흔쾌히 동조한 덕에 빨리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에게도 빼어난 콘텐츠가 많은데, 그걸 보여주는 방법론에서 서툴렀던 것 같다는 생각에서 총대를 메고 나선 인물로, 그녀의 오랜 고객이기도 한 젊은 컬렉터 시라이 가즈나리(Kazunari Shirai)와 의기투합해 판을 벌였다. 전도양양한 사업가인 시라이 가즈나리의 사무실이 있는 근사한 건물은 이번에 신진 건축가 후원 차원에서 유망한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기는 라운지 'AWT 바(bar)'가 들어선 프로젝트 공간으로 쓰이기도 했다. 올해 아트 위크 도쿄에서 대규모 사진전(도쿄 오페라 시티 아트 갤러리)으로 가장 큰 관심을 끌어모은 작가 중 하나인 가와우치 린코를 비롯해 아티스트가 직접 레시피 제조에 참여한 칵테일을 맛볼 수도 있는 공간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의외로 '아트 위크'라는 개념에 익숙지 않았던 로컬 갤러리업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렸다는 점이다. 하지만 잠시라도 참가를 망설인 갤러리 관계자가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듯하다. 대다수의 VIP 방문객은 그동안 잘 몰랐던 일본 현대미술계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호의적인 피드백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행사에서 세계 최강 아트 페어 브랜드인 아트 바젤(Art Basel)과 협업을 맺고 VIP 프로그램을 꾸린 행보에 큰 지분이 있다. 지난 11월 1일 오쿠라 호텔에서 열린 오프닝 파티와 공연을 시작으로 다국적 손님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동됐는데, 전용 버스를 타고 아트 투어를 하던 유럽과 미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VIP 중에는 작품을 '찜'하거나 아예 구매를 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갤러리 고야나기를 이끄는 고야나기 아쓰코 대표는 이번 아트 주간에 8년 전 리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지기도 했던 일본 현대미술 거장 스기모토 히로시의 사진전을 개최했는데, 해외 아트 페어에 참가하는 건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우리 공간에서 우리가 작품을 어떻게 전시하는지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도 덧붙이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절경을 배경으로 스기모토 히로시가 직접 설계한 오다와라 아트 재단의 에노우라 천문대(고야나기 대표는 작가의 아내이기도 하다)에서 그녀가 직접 안내하는 모습을 보노라니 '우리의 방식을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이 십분 이해된다. 도쿄에서 2시간 넘게 버스로 이동한 직후라 피곤해진 눈에도 천상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출중한 '아트스케이프(artscape)'는 그야말로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게 만든다.

글로벌 허브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실험 무대 역할도

아트 위크 도쿄 2022는 처음에 필자가 품었던 '왜 (요즘 유행하는) 아트 페어를 시도하지 않았지?'라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을 해준 행사였다. 도쿄에 대한 도시 호감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태계가 지닌 문화 예술적 자산을 내놓고 상업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주고, 도시의 구석구석을 익숙하게 만들어가겠다는 것. 이는 오히려 한동안 불타오르다가 단명해버리기도 하는 아트 페어에 비해서 장점도 있다. 게다가 내년 도쿄와 멀지 않은 요코하마에서 새롭게 선보일 아트 페어인 도쿄 겐다이에 앞서 잠재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실험의 장 역할도 해낸 듯하다. 물론 모든 행사가 그렇듯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아트 위크 도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연례 주간에 참여하는 문화 예술 생태계에 걸친 다양한 조직이 50여 군데나 되니 규모 자체는 충분히 크고 '느슨한 연대'로 묶이는 행사의 구성이나 취지도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만 일본, 특히 도쿄라는 도시가 지닌 다양한 문화 예술적 자산을 버무린 '융합'적 성격이 더해진다면, 그리고 보다 다국적 면면을 품은 콘텐츠로 구성한다면 좀 더 흥을 돋우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아의 도시들도 문화적 헤게모니를 향한 경쟁 구도로 치달을 필요 없이 저마다의 특장점을 보듬고 키우는 선의의 행보를 펼치고 창조적 네트워크를 다질 때가 아닌가 싶다. 어느 한 나라를 피해 가기 힘들 만큼 아시아 자체의 매력도를 골고루 끌어올리면서 시너지를 꾀하는 '윈-윈' 시나리오를 구상하면서 말이다. 글 **고성연** 도쿄 현지 취재

3

4

5

6

7

1 동시대 미술의 지평을 넓히는 '글로벌 행사'를 지향하는 축제,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 2022 기간에는 51개 갤러리와 미술관이 참여했다. 일본 현대미술계 거목 오타케 신로(Shinro Ohtake) 회고전(도쿄 국립근대미술관) 풍경. **2** 신진 건축가 후원 차원에서 유망한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기는 라운지 'AWT 바(bar)'가 들어선 프로젝트 공간. 올해는 떠오르는 건축가 만지이 모토스케(Mandai Motosuke)가 선정됐다. **3** 시세이도 갤러리 전시 풍경. 'Tsubaki-kai 8: This New World – "Quest" –', Shiseido Gallery, Tokyo, 2022 Photo by Ken Kato **4** 모리 아트 미술관 《Listen to the Sound of the Earth Turning: Our Wellbeing since the Pandemic》 전시 풍경. **5** 한국의 현대미술 거장 이우환 회고전(도쿄 국립신미술관)에서 선보인 설치 작업. 이 전시는 순회전 형식으로 곧 고베현립미술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Lee Ufan, 15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Art Center, Tokyo', 2022, installation view Photo by Noriko Yamamoto **6** 도쿄도의 현대미술관 MOT 전시 풍경. Arnaldo POMODORO, 'Gyroscope of the Sun', 1988 Photo by Keizo Kioku **7** 도쿄 오페라 시티 아트 갤러리에서 선보인 가와우치 린코(Rinko Kawauchi) 개인전 풍경. **8** 동시대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 아베다 료지(Ryoji Ikeda)의 타로 나스(TARO NASU) 갤러리 개인전. **9** 옛 우체국 건물을 전시 공간으로 개조한 갤러리인 웨이팅룸(WAITINGROOM) 2주년 풍경. **10** 목욕탕 건물을 개조한 전시 공간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스카이더배스하우스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일본 작가 미와 미쓰코(Mitsuko Miwa) 전시 풍경. Installation view of 'Full House', 2022, SCAI THE BATHHOUSE, Tokyo. Photo by Nobutada Omote ©Mitsuko Miwa Courtesy of the artist and SCAI THE BATHHOUSE **11** 일본 예술가 요시마스 고조(Gozo Yoshimasu)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다케 니나가와 갤러리 모습. '아트 위크 도쿄의 공동 창립자이자 총괄 디렉터 역할을 맡은 니나가와 아쓰코가 운영하는 갤러리. **12** 현대 사진 미술의 거장인 일본 아티스트 스기모토 히로시가 디자인을 맡은 오다와라 아트 재단의 전시 공간 모습. Courtesy Art Week Tokyo

※ 1, 4, 7~9, 11, 12 photo by SY Ko

8

9

10

11

12

Interview with_ 박서보(Park Seo-Bo)

just as nature does

오래전 일군 업적에는 부풀린 '환상'이 덧대지기도 하지만 익숙한 무용담처럼 듣다 보면 자칫 손쉽게 이룬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미술계에 몸담고 있지 않더라도 문화 예술에 관심을 가진다면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색화'라는 장르도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 작금의 '예술 한류'를 이끄는 흐름 중 하나인 단색화가 글로벌 미술계에서 부각되고 지구촌을 누비면서 조명받게 된 지 사실 10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짧은 세월 동안 그 대열의 선구자로 꼽히는 박서보에게는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돌이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에 걸쳐 쌓아 올린 창조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위업이었을 터다.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유명한 루이 비통의 '아티카퓌신' 컬렉션에 참여하면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력을 보탠 박 화백을 만나봤다.

언젠가부터 '박서보'라는 이름 석 자는 별다른 수식어를 끌어다 쓰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미술계에서는 하나의 장르로 간주될 만한 무게를 지닌 고유명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비단 아시아 권역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도 '미술 한류'의 주역으로 꼽히는 만 아흔한 살의 화백. "난 1950년대에도 명함이든 뭐든 다 '박서보'로 썼어요. '서보박'이 아니라." 박서보의 자택과 작업실이 함께 있는 서울 서대문구 기지재단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캐릭터였다. 박 화백에 대한 책을 쓴 싱가포르 미술 평론가 케이트 림의 표현처럼 '백 점 맞은 시험지를 자랑하는 아이처럼 순수하고 직접적'인 특유의 화법. 거침없는 말투와 표현으로 말미암아 더러 오해와 질투를 사기도 하지만, 누가 뭐래도 그는 동시대 미술계에서 몹시 소중한 존재다.

의미 있는 '최초'를 거듭 만들어내고 있는 노익장

글로벌 무대에서 '대접'과 '평가'를 동시에 누리는 박서보의 존재감이 여실히 느껴진 것은 필자 개인적으로는 2018년 겨울 무렵이다. 물론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에 선보인 그룹전으로 물꼬를 튼 단색화 열풍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몸소 접하지는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화이트 큐브 홍콩에서 열린 박서보 개인전에 초청받아 전시장을 방문하면서 그의 작업 세계를 찬찬히 들여다보게 됐다. 런던을 주무대로 하는 세계적인 갤러리 화이트 큐브는 이미 박 화백과 성공리에 전시를 한 적이 있지만, 전속 작가로 공식 발표하면서 그의 초기작인 '연필 묘법' 작품을 그러모아 선보인 자리였다. 국어 공책에 글자를 써보려 애쓰던 세 살배기 둘째 아들의 체념 어린 연필질에서 발견한 '비움의 미학'으로 오늘날 박서보를 상징하는 묘법(écriture)의 단초를 얻었다는 일화로 유명한 바로 그 작품 시리즈다. 작가의 출발점부터 짚어보면서 인연의 서막을 기념한다는 취지도 좋았지만,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집중하게 되는 특유의 질감과 리듬감이 잔잔하게 와닿았다.

실제로도 그는 화이트 큐브와의 협업을 자신의 예술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늘 하는 얘기지만 2015년 베니스에서의 단색화 전시가 나를 살렸고, 이어 2016년 화이트 큐브 전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됐어요. (물론) 그보다 앞서 갤러리 페로탕과 했던 전시도 빼놓을 수 없을 테고." 그는 이렇게 훈훈한 회상을 하면서도 자신을 위시한 단색화 작가들의 가치에 대한 범세계적인 주목과 인정이 훨씬 더 일찍 찾아올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단색화가 처음 해외로 진출한 무대인 일본 도쿄에서의 〈다섯가지 흰색전〉(1975), 이어 긴자의 센트럴 뮤지엄에서 개최된 〈한국, 현대미술의 단면〉(1977) 등을 들 수 있다. 당시에 불거졌던 관심에 좀 더 고삐를 당기는 기폭제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부단히 작업해나가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했고 의미 있는 해외 활동도 이어갔다. 1997년 명성 높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에이스 갤러리 개인전도 박 화백이 자부심을 갖는 인생의 명장면이다. "에이스 갤러리에서 전람회를 한다니까 당시 김창열(지금은 고인이 된 '물방울' 화가)이 숨이 딱 막히는 반응을 보였어요. 나중에 제이 조플링(화이트 큐브 창립자)도 (이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그 어떤 존재감에도 무게는 공존한다!'

그렇지만 천하의 박서보도 늘 자신만만했던 건 아니다. '밀레니엄'이라는 키워드가 떠들썩하게 회자되던 21세기 목전에 자신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낙오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쳤기 때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그의 나이가 70세였다. "디지털 시대의 속도를 못 따라가서 추락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내가 평생 비교적 순탄하게 견뎌왔는데, 그 엄청난 21세기의 변동 속에서 망가져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엄살 섞인 과장을 좀 보태자면 '자결'까지도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외려 돌파구를 찾았다. 지구 전체가 스트레스 병동화가 된 21세기 사회에 자신의 비움의 철학에 바탕을 둔 '치유론'을 내놓는 것이었다. 어차피 캔버스를 표현이나 배설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비워내는 마당'으로 써온 그였기에 많은 이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리였다. 이는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연을 스승으로 삼아온' 예술적 행보 덕분에 가능한 접근 방식이었다. "꽃이 피고 이파리가 돋는 게 자연의 이치지요. 자연의 생생한 아름다움을 내 그림 속으로 유인한다면 다들 친숙하게 접근하면서 '치유'로 이끌 수 있지 않겠나,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옳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미술 애호가를 빠져들게 한 '색 묘법'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이다.

가을날의 새빨간 단풍이 영감으로 찾아오다

위대한 자연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그의 색 묘법은 이번에 루이 비통의 '아티카퓌신' 프로젝트에서 박서보 화백이 택한 '단풍색' 백의 바탕이 되기도 했다. 루이 비통은 2019년부터 매해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6인과의 창조적 협업을 통해 '아티카퓌신' 컬렉션을 선보여왔는데, 올해는 박서보 화백을 비롯해 다니엘 뷔랑(Daniel Buren),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 피터 마리노(Peter Marino), 케네디 얀코(Kennedy Yanko), 아멜리 베르트랑(Amélie Bertrand)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나란히 주인공이 되면서 각기 다른 매력을 품은 컬렉션을 빚어냈다. 1백68년의 브랜드 역사 속에서 한국 작가로는 박 화백이 처음으로 루이 비통과 제품 협업을 하게 된 것이다. 박서보의 아티카퓌신은 그가 손수 고른 새빨간색을 머금고 앙증맞은 나무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이는 그의 작품과의 연계성을 띠는 섬세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무 손잡이는 캔버스 프레임의 나무를, 가방 밑바닥에 있는 귀여운 4개의 받침은 캔버스를 고정하는 나사를 상징한다. 그리고 매혹적인 붉은색은 그가 커다란 영감을 받은 단풍의 빛깔이다. 70세 생일을 맞이해 그가 인연을 맺었던 일본 화랑에서 전시를 제안했을 때 후쿠시마로 떠났는데, 바로 그 여행에서 단풍의 절정기를 맞닥뜨렸고 색의 파노라마에서 궁극의 희열을 느낀 것이다. "산으로 올라가 골짜기를 내려다보는데, 으악 소리가 날 정도로 새빨간 게 막 타오르는 것 같았죠. 자연이 정말 위대하구나. 이렇게 위대한 것을 이 조그만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는 절로 겸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꼭 오늘 받은 감동을 표현해내겠다' 다짐했다고 한다. 그렇게 당시의 찬란한 영감은 화폭에 담겼고, 이번에는 아티카퓌신 백에 곱게 물들었다. "그때 그 단풍이 그대로 가방으로 수놓아진 셈이네요"라고 박서보식 화법을 나름 따라 하자 그는 "그럼!"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부디 이 부단한 창의적 열정과 에너지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라본다. 글 **고성연**

1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한 박서보 화백은 루이 비통이 해마다 현대미술 작가 6인과 전개하는 '아티카퓌신(ArtyCapucines) 4' 컬렉션에 참여했다. 이를 기념해 지난 11월 8일부터 24일까지 루이 비통 메종 서울에서 아티카퓌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Photo by Jaehoon Kim **2** 1931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91세인 박서보 화백은 루이 비통과의 협업 제품을 선보인 최초의 한국인 아티스트다. **3** 현대미술 작가 6인이 저마다의 시선을 담아낸 아티카퓌신 4 컬렉션. 지난 10월 파리에서 열린 아트 페어 파리+ 공개에 이어 국내에 처음 전시됐다. **4** 올해 현대미술 작가 6인의 아티카퓌신 컬렉션은 박서보 화백의 대표 연작 '묘법(描法 · Écriture)' 세 점과 함께 에스파스 루이 비통 메종에 전시됐다. **5**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전시를 갖는 박서보 화백의 여러 도록과 단행본도 이번에 함께 선보였다. **6** 프로방스 지역에 자리한 아트 센터 샤토 라 코스트 내에 있는 리처드 로저스 드로잉 갤러리에서 박서보 개인전이 개관전으로 열렸다. 이탈리아 태생의 영국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 경이 설계한 마지막 작품이다. Courtesy the artist and Perrotin. Photo by Stéphane Aboudaram ©WeAreContents **7~9** 박서보 화백과 루이 비통의 섬세한 수공예 장인 정신이 깃든 제작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온 아티카퓌신 4. 캔버스를 고정하는 나사라든지 나무 손잡이, 가방 안의 서명 등은 실제 회화 작업의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 1~5, 7~9 이미지 제공_루이 비통, 기지재단

Timeless Modernity

파리의 뤼 드 라 뻬 13번지(13 rue de la Paix)는 까르띠에에 시작
그리고 다양한 기억과 스토리가 존재하는 장소다. 잔 투상과 루이 까르띠에의
성지이자 까르띠에의 영감이 탄생한 심장이기도 하다. 2022년 10월,
완벽하게 레노베이션된 이 공간이 아름다움, 풍요로움, 창의성, 설렘을
가득 품고 시간을 초월한 소중한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했다.

1

2

살아 있는 전설의 장소

전설적인 부티크 지도에서 뉴욕 5번가의 맨션(mansion), 런던 뉴 본드 스트리트, 파리의 뤼 드 라 뻬 13번지의 '템플'이 우주와 함께 힘찬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 장소들은 3개의 역사적 주소이자 3개의 뿌리, 메종의 중요한 3개의 스타일적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삼위일체 중 뤼 드 라 뻬 13번지는 까르띠에 역사에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한다. 1899년 아버지 알프레드와 합류한 루이 까르띠에가 파리를 가족 사업의 토대로 삼기로 결심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이후 그는 이곳에서 특별한 운명을 개척해나갔다. 그런 만큼 뤼 드 라 뻬 13번지는 모든 영감의 근원지이자 모체라 할 수 있다. 이 주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언제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야말로 진정한 집(home)인 것이다. 뤼 드 라 뻬 13번지는 언제나 인간을 위한 장소이자 풍요로운 창의성이 넘쳐흐르는 곳이었다. 빛의 도시 파리와 그곳에 집중된 문화 및 외교적 삶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던 이 특별한 부티크는 전 세계에서 온 특별한 인물과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맞이했고, 시인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까르띠에 스타일에 있어 가장 위대한 트렌드를 탄생시킨 곳이다. 완전히 레노베이션되어 새롭게 공개된 뤼 드 라 뻬 13번지 부티크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유동적이면서도 분명한 방식으로 공존한다. 상업적 기능을 하는 공간은 건물 6층 중 4개 층을 차지하는데, 하이 주얼리 워크숍, 메종의 아카이브를 위한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 레지던스(Residence)라고 명명한 공간에서는 환대의 전통, 문화적 개방성, 지성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다. 변신은 극적이고, 변화는 파격적이다. 각각의 새로운 공간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약속하며, 대변신의 마력과 신비도 느낄 수 있다. 까르띠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빛의 디스플레이와 함께 등장한다.

끊임 없는 진화, 궁극적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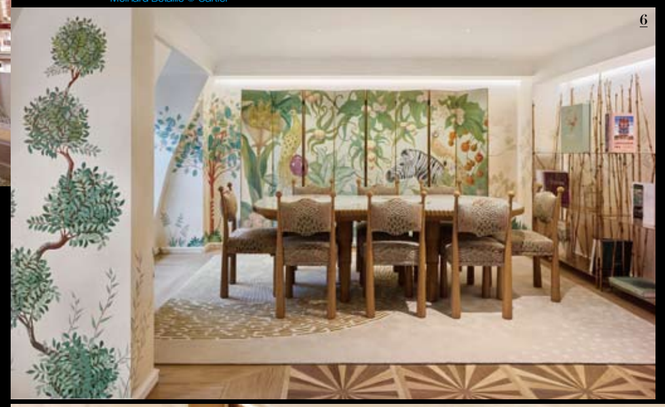
메종과 친밀한 건축가 세 팀 모이나르 베타유(Moinard Bétaille), 스튜디오파리지앵(Studioparisien), 로라 곤잘레스(Laura Gonzalez)가 함께 협력해 이 조화로운 변화를 선사했다. 건축과 인테리어에서 건물의 중요한 요소를 보존하면서 메종의 정체성과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이 눈에 띈다. 부티크 자체는 건물의 지상층과 첫 두 층을 차지하고 있으며, 3층에서는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층에는 하이 주얼리 아틀리에, 5층과 꼭대기 층에는 아카이브, 겨울 정원, 레지던스가 자리한다. 특히 레지던스는 즐거움과 문화 이벤트 등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특별히 고안되었다. 블랙 컬러의 대리석이 특징인 뤼 드 라 뻬 13번지 부티크의 전설적인 파사드는 그대로 보존되었다. 외부에는 숫자 13 앞에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키오스크를 설치해 고객을 환영한다. 드디어 입장하는 순간, 시선은 부티크 뒤쪽으로 향한다. 그곳에 파리의 건물 안뜰에서 영감을 받은 아트리움이 있다. 아트리움은 건물의 수직축이 되는 동시에 여유로운 공간감을 선사한다. 유리 지붕을 통해 건물 전 층에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다른 공간과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내고, 까르띠에 역사 속 특징적인 스타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했다. 건물을 관통하는 또 다른 공통분모는 대중에 개방된 4개 층에 펼쳐지는 역사적인 살롱이다. 여정의 사이사이에 위치한 살롱은 까르띠에의 창조적 유산이 지닌 힘을 연상시킬 뿐 아니라 쉬어 갈 수 있는 테마 공간 역할을 한다.

2층 전체는 하이 주얼리를 위한 공간이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낮 동안 뤼 드 라 뻬가 내려다보이는 여러 개의 살롱은 방문객들이 메종의 영향력과 특정 스타일을 보여준 주요 시대에 빠져들게 한다. 아트리움에서 이어지는 2대의 승강기를 통해 까르띠에가 제공하는 서비스(관리, 수선, 퍼스널라이징 등)를 받을 수 있는 3층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클래식한 우아함, 곡선미, 부드러운 톤, 최상의 소재 등으로 부티크 고유의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명확히 구분된 기능을 수행하는 이 새로운 공간은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4층 공간에는 18개의 작업대가 구비되어 있는데, 아트리움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자연광이 작업대 각각에 쏟아져 내린다. 5층 일부 구역에는 메종의 가장 소중한 아카이브 일부가 소장되어 있다.

한편 새로운 뤼 드 라 뻬 13번지 부티크에서는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특별한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새 공간을 장식하고 메종의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수십 명의 프랑스 예술 거장들의 작품까지 40점에 달하는 예술 작품이 한데 모였다. 칠기, 목공, 가죽 혹은 밀짚 상감세공, 모자이크, 금속공예, 카펫, 유리, 벽지 혹은 석고 작업, 맞춤 제작 가구, 파티나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른다. 가장 재능 넘치는 장인들이 가장 섬세하고 정교한 기술로 함께 작업하며 뤼 드 라 뻬 13번지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아름다움, 대담함, 우아함으로 가득한 메종의 역사에 오리지널 부티크에 대한 재해석을 더해 변신은 파격과 함께 더욱 드라마틱하게 다가온다. 아름다운 여정을 마친 뤼 드 라 뻬 13번지는 경이로움과 탐험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생기로 가득한 이곳은 찾아내는 즐거움만큼이나 발견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화려하면서 친근하고 웅장하면서 감동을 주는 이곳은 메종의 크리에이션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이자 찾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장소이며 새로운 추억이 될 것이다.

5

1 까르띠에 뤼 드 라 뻬 13번지의 아트리움. 건물의 수직축이 되는 동시에 여유로운 공간감을 선사한다. Moinard Bétaille © Cartier **2** 까르띠에 뤼 드 라 뻬 13번지 건설 과정 스케치 일부. Laziz Hamani © Cartier **3** 까르띠에 뤼 드 라 뻬 13번지의 왼도. Lucie et Simon © Cartier **4** 까르띠에 뤼 드 라 뻬 13번지의 레지던스 리빙룸. 문화 이벤트 등을 위한 공간으로 특별히 고안되었다. Moinard Bétaille © Cartier **5** 1912년에서 1913년 사이 당시 파리 뤼 드 라 뻬 13번지 까르띠에 부티크의 모습. Archives Cartier Paris, André Taponier © Cartier **6** 까르띠에 뤼 드 라 뻬 13번지의 레지던스 다이닝 룸 . Moinard Bétaille © Cartier **7** 까르띠에 뤼 드 라 뻬 13번지에 위치한 잔 투상 살롱. 1933년부터 1970년까지 메종의 디자인 수장으로서 루이 까르띠에의 뒤를 이은 그녀가 쓰던 집무실에 자리한 공간이다. Moinard Bétaille © Cartier


6

3

4

7

Interview with... **Pierre Rainero**

까르띠에의 이미지, 헤리티지 & 스타일 디렉터 피에르 레네로는 오랜 시간 까르띠에와 함께하며 드라마틱한 변화와 진화의 중심에 서온 인물. 파리에서 그와 만나 새롭게 변신한 뤼 드 라 뻬 13번지 부티크와 까르띠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나누었다.

Q1 뤼 드 라 뻬 13번지 부티크의 '변신'에 대한 첨화이 궁금합니다. 크리에이션 혹은 부티크를 통해 까르띠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언제나 고객의 의견과 동시대의 요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부티크는 고객이 까르띠에를 경험하고 제품을 발견하는 각자의 방식을 존중합니다. 이는 까르띠에가 뤼 드 라 뻬에 문을 연 이래로 항상 추구해온 방식입니다. 까르띠에는 메종이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까르띠에다움을 담는 동시에 진화하는 세계를 지속적으로 통합하려 노력하죠. 까르띠에 역시 변화하고, 고객도 마찬가지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고, 어떤 면에서는 변화를 통합하며 현재와 미래의 까르띠에를 동시에 투영하는 것이 우리의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이 부티크를 통해 만나는 까르띠에는 20세기 초의 까르띠에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있고, 스타일과 장인 정신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아름다운 오브제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까르띠에이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직면하는 도전 과제입니다. **Q2 뤼 드 라 뻬 13번지 부티크 재오픈에서 돋보이는 '개방성'과 '소통'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부티크의 건축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객이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부티크에는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살롱과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친밀감을 원하는 분께는 따뜻한 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방성'은 우리가 부티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Q3 대부분의 럭셔리 메종이 '현대성'을 추구합니다. 까르띠에에 있어 '현대성'이란 무엇인가요?** '현대성'이란 개념은 매우 상대적입니다. '현대인의 욕망과 알지하는 모든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특정 시기에 관심을 두는 것도 매우 '현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 관심이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죠. 까르띠에는 항상 새로운 창조 방식과 아름다움의 새로운 표현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까르띠에는 이렇게 탄생했으며, 우리는 항상 이름다운 오브제를 창조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DNA이고 까르띠에가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까르띠에의 가치관과 원칙은 영원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외관은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까르띠에는 늘 기회와 트렌드에 주목합니다. 그렇지만 영속성과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고, 실제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죠. **Q4 뤼 드 라 뻬 13번지는 까르띠에에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1899년 말에 뤼 드 라 뻬 부티크를, 1909년에 본드 스트리트 부티크를 오픈했습니다. 그에 앞서 1902년에 영국에 진출했죠. 까르띠에는 1909년에 뉴욕에 진출했지만, 뉴욕에 있는 맨션은 1917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 곳은 매우 중요한 부티크의 역사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뤼 드 라 뻬는 지금의 까르띠에가 탄생한 근원지입니다. 여기에서 까르띠에의 스타일이 탄생했습니다. 하나의 부티크일 뿐만 아니라 까르띠에의 본부였습니다. 독창적인 장인 정신이 빛나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까르띠에의 비전이 발전했고, 현대의 까르띠에가 탄생했습니다. 모든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까르띠에 스타일의 정신과 영혼, 그 창조의 역사와 까르띠에가 나뉜 모든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뤼 드 라 뻬입니다. **Q5 뤼 드 라 뻬 13번지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도움말을 줄 수 있을까요?** 다양한 디테일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패브릭과 벽지 종류, 바닥재, 벽에 걸린 장인들의 작품까지, 모든 디테일은 전문적인 식견으로 엄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색다른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층 내에서도 새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도 방문객을 기분 좋게 만들죠. **Q6 이 부티크를 표현하는 세 단어가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세련미'입니다. 매우 모던하고 세련된 곳이죠. 그리고 '편안함', 마지막으로는 '개방성'이라 생각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다이아몬드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high shine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티파니 캐태일 워치** 베젤과 다이얼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미국 재즈 시대의 화려한 이브닝 워치를 연상시키는 제품으로, 18K 화이트 골드로 이루어진 21x34mm 케이스를 장착했다. 블랙 새틴 스트랩을 매치해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담았으며,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다올 타임피스 젬 다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독특하고 구조적인 세이프의 젬로 골드 케이스에 0.88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위쪽 포인트 골드 장식에는 6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한 쿼츠 무브먼트 워치 가격 미정. 문의 02-3480-0104

IWC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34 지중해의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이 양립을 이루는 타임피스 컬렉션 워치로, 직경 34mm의 아담한 케이스와 9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화려함을 전하는 베젤이 특징이다. 오토매틱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2천5백만원. 문의 1877-4315

그라프 스피어헬 워치 무한히 이어지는 매끄럽고 유려한 나선형 배열에 총 1.4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 쿼츠 무브먼트 워치. 은은한 화이트 머더오브펄 다이얼에 2개의 작은 핸즈를 모던하게 배치했으며, 블랙 새틴 스트랩을 매치해 주얼 워치의 면모를 고루 갖췄다. 2천4백86만원. 문의 02-6905-3330

피아제 폴로 데이트 워치 36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3백5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1.21캐럿을 세팅한 파베 다이얼과 인덱스가 화려함을 더한다. 베젤과 크라운에도 89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1.24캐럿을 세팅했으며, 딥 블루 컬러의 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다. 501P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8천5백50만원. 문의 1668-1874

바쉐론 콘스탄틴 에꺄리 문페이즈 직경 37mm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에 베젤에 5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앨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했다. 이 워치의 매력은 오트 쿠튀르 패브의 섬세한 주름을 떠올리게 하는 다이얼과 문페이즈 창,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367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다. 마치 구름 뒤의 달과 별이 가득한 하늘이 떠 있는 듯 마법 같은 감성을 전한다. 오토매틱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4천4백70만원. 문의 1877-4306

블랑팡 빌라레 우먼 울트라슬림 브랜드의 시그너처 컬렉션 빌라레의 레이디 버전으로, 화이트 골드 소재의 직경 29.2mm, 두께 8.7mm의 케이스를 다하고 베젤과 인덱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부여했다. 옻칠한 파란색의 화려한 무늬가 각인된 다이얼이 인상적이며, 블랙 앨리게이터 스트랩으로 클래식한 매력까지 담았다. 2천2백만원대. 문의 02-310-5295 에디터 **성장민**

Perfect Game

스위스 워치메이커 오메가는 제임스 본드 탄생 60주년을 맞이해 런던에서 블랙 타이 이벤트를 개최했다. 007 영화를 재현하듯 런던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펼쳐진 이 드라마틱한 이벤트는 흥미진진한 볼거리와 함께 제임스 본드와 워치메이킹에 대한 오메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었다.

1

영원한 히어로, 제임스 본드와 오메가

"EON 프로덕션, 제임스 본드와 오메가의 인연은 워치메이킹 분야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메가 시계의 탁월한 스타일과 신뢰할 수 있는 정확성을 강조하면서도 창의적이고 즐거운 경험에 빠져들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밤 오메가와 제임스 본드의 오랜 인연에서 시작된 이벤트를 마음껏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by 레이날드 애슐리만(Raynald Aeschlimann, 오메가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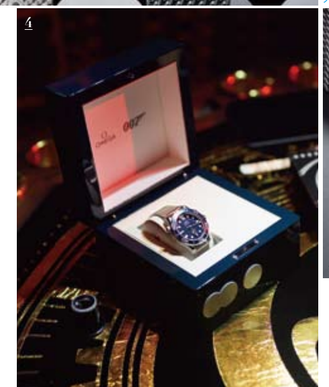
지난 11월, 오메가는 유서 깊은 007의 유산에서 영감받아 런던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제임스 본드의 세계관을 담은 극적인 경험을 다이내믹하고 위트 있게 전개하며 흥미로운 스파이의 밤을 선사했다. 직접 참석해 특별한 밤을 빛내준 존재는 바로 5편이 넘는 영화에서 007을 연기했던 다니엘 크레이그. 그는 오메가의 앰배서더이자 오메가 시계의 열정적인 애호가다. "〈카지노 로얄〉 이후 촬영한 모든 영화에서 오메가와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제임스 본드는 무엇이든 최고를 추구하는 인물인 만큼, 오메가처럼 아름답고 신뢰도 높은 제품을 착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007 시리즈에 대한 헌사와도 같은 이번 이벤트에서는 영화에 등장한 소품과 영화 속 'Q'의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기기뿐 아니라 제임스 본드가 착용한 오메가 시계의 전체 라인업을 둘러볼 수 있었다. 여기에는 제임스 본드 탄생 6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선보이는 2개의 씨마스터 다이버 300M 타임피스도 포함되어 주목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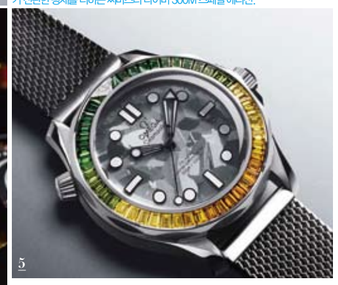
2

제임스 본드 60주년 기념 씨마스터 다이버 300M

오메가 시계는 1995년 〈007 골든 아이〉에서 제임스 본드의 시계로 선정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파이, 007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의상 디자이너, 린디 헤밍(Lindy Hemming)은 영국 해군 출신인 007의 이력을 고려할 때 씨마스터 다이버 300M이 가장 적합하다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제임스 본드 탄생 60주년 기념 씨마스터 다이버 300M은 42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스틸 시계로 영화 〈골든 아이〉에서 제임스 본드가 착용한 씨마스터에서 영감을 받은 시계. 실제로 007 영화 테마를 반영해 특별한 미세 구조 금속화로 장식한 사파이어 하단의 케이스 백에 제임스 본드 실루엣과 회전하는 건 배럴이 등장하는 007 오프닝 시퀀스를 새겨 넣었다. 여기에 롤러팝 센트럴 세컨즈 핸드가 회전하면서 특허출원 중인 '무아레(moiré)' 효과 애니메이션 연출로 눈길을 끌었다. 베젤과 다이얼은 양극 산화 처리한 블루 알루미늄으로 제작했고, 다이얼은 레이저로 각인한 물결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베젤은 화이트 슈퍼루미노바®를 채운 다이빙 스케일을 갖추었다. 다이빙 스케일의 역삼각형을 대신하는 기념 숫자 '60' 및 미닛 핸드와 연결되는 초록색 야광 도트도 타임피스에서 눈여겨봐야 할 특징. 제임스 본드 탄생 60주년을 기념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타임피스는 오랜 기간 눈부신 광채를 유지한다고 알려진 오메가의 18K 캐노퍼스 골드™(Canopus Gold™)로 제작되었다. 자메이카 국기를 연상시키는 베젤에는 엑스트라 다크 포레스트 그린에서 올리브, 옐로, 골드, 코냑 등 10가지 트로피컬 컬러를 띤 그린 및 옐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다. 12시 방향에 세팅한 2개의 다이아몬드는 제임스 본드 탄생 60주년을 기념하는 타임피스에 광채를 더해준다.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7로 구동하며 18K 캐노퍼스 골드™ 소재의 브레이슬릿과 버클을 장착했다.

3


4


5

1 오메가의 앰배서더이자 007 시리즈의 주인공인 다니엘 크레이그. **2** 제임스 본드 탄생 6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씨마스터 다이버 300M. 시계 뒤편에서 007을 만날 수 있는 위트 넘치는 디자인이 흥미롭다. **3** 007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듯했던 제임스 본드 탄생 60주년 기념 행사장 입구. **4** 영화 세트장 같았던 행사장 내부에서 선보인 씨마스터 다이버 300M. **5** 베젤의 컬러 다이아몬드와 12시 방향의 다이아몬드 2개가 존재한 광채를 더하는 씨마스터 다이버 300M 스페셜 에디션.

Step into Winter

최근 패션 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륨감 있고 청키한 스타일의 힙스터 부츠.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카프 스킨 소재의 패디드 디테일과 유광 카프 스킨으로 이뤄진 앞코와 앵클 디테일이 고급스러운 레이스업 부츠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chanel.com. 절제된 세련미를 갖춘 디자인에 청키한 느낌의 아웃솔로 개성 있는 연출을 도와주는 윈터 고미노 레이스업 앵클부츠 1백30만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8. 신축성 있는 스토퍼와 페이턴트 모노그램 캔버스로 패딩 느낌을 살려 스키 룩을 연출한다. 발수 가공해 습기의 침투를 방지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비닐 소재에 LV 서클 로고를 더한 고무 패치 디테일을 가미했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클래식한 레인 부츠 디자인에서 착안한 캐주얼한 감성의 부츠로 로로피아나의 신규 바이오 기반 미래 기술로 개발한 스톰 시스템® 처리로 방수와 방풍 기능을 겸비했다. 캐시미어 샤프트와 송아지가죽을 결합한 리젠트 앵클부츠 2백44만원 **로로피아나.** 문의 02-546-0615. 바게트 백 탄생 25주년을 기념하는 스페셜 에디션인 도미노 바이커 부츠로 바게트 백을 닮은 옆면의 미니 포켓과 핑크, 브라운을 적절히 블록 매칭한 디테일이 돋보인다. 2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14-0652. 파라슈트 캔버스 소재와 카프 스킨을 믹스해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는 올 화이트 컬러의 레이스업 앵클부츠 1백1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성정민**

아시스턴트 **신경일**

(왼쪽) 램 스킨 소재에 웨지 고무 밑창을 더해 볼륨감을 준 패디드 앵클부츠 1백60만원대 **로에베.** 문의 02-3479-1785 (오른쪽) 가볍고 실키한 무광 마감의 기능성 원단으로 만든 쇼트 다운 재킷 5백36만원 **로로피아나.** 문의 02-546-0615

(왼쪽) 나일론 패브릭을 특수 레진으로 처리해 유광 질감이 돋보이는 은은한 파스텔 퍼플 컬러의 미야 70 쇼트 다운 재킷 2백65만원대 **몽클레르.** 080-311-0000 (오른쪽) 부드러운 카프 스킨에 메탈 포일 효과를 내도록 라미네이트 처리해 반짝이는 매력을 더한 스타일리시한 소프티 클러치 1백81만원대 **멀버리.** 문의 02-2018-1439

아시스턴트 **신경일**

Padding Landing

패딩의 계절이 돌아왔다. photographed by **kim sa yoon**

(왼쪽) 라미네이트 처리한 레더와 페이크 퍼 소재의 메탈릭 실버에 스포티하고 볼드한 화이트 아웃솔을 매치해 스포티하면서 청키한 느낌을 주는 부츠 96만원 **호간.** 문의 02-3479-1593 (오른쪽) 글로시한 느낌의 나일론으로 힙한 감성을 더하고 오리털로 충전해 가볍고 따뜻한 록 유어 로드 후드 푸퍼 패딩 1백57만원 **디스퀘어드2.** 문의 02-3479-1296

(왼쪽) 비비드한 네온 컬러로 룩에 포인트를 더하고 나일론 소재로 패딩 느낌을 준 베이스볼 캡 1백10만원대 **펜디.** 문의 02-514-0652 (가운데) 빵빵한 볼륨감이 멋진 룩을 연출해주는 패딩 재킷으로 두 겹의 테크니컬 패브릭 소재라 탁월한 내마모성과 방수성, 방풍성, 통기성을 갖췄다. 4백70만원대 **프라다.** 문의 02-3218-5320 (오른쪽) 퀼팅 처리한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소재로 멀티컬러 로즈 프린트와 DG 로고 패치, 초경량 고무 솔이 시선을 사로잡는 앵클부츠 1백23만원 **돌체앤가바나.** 문의 02-3442-6888 에디터 **성정민**

Great Starry Affair

이탈리아의 오래된 고성에서 또 한번 구찌의 마법이 펼쳐졌다.
복잡하지만 독창적인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패션은 우주와 연결되어
관객들을 잠시 환상의 세계로 이끌었다. 달빛에 숨 죽이고
밤하늘의 별에 매료되었던 2023 구찌 크루즈 컬렉션 현지 리포트.

2

3

4

5

6

독특한 기하학적 디자인으로 유명한 카스텔 델 몬테는 창의적인 천재였던 프리드리히 2세가 1240년경에 건축을 의뢰한 걸작이다. 외딴 곳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성은 해발 540m인 이탈리아 남동부의 풀리아 지역에 자리한다. 하루 종일 햇빛이 쏟아지는 수평의 언덕, 건축적인 완벽함과 북유럽, 이슬람 문화, 고대 등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카스텔 델 몬테는 여러 민족, 문화, 문명 및 종교가 교차하는 지중해를 완벽하게 표현한다. 이 절대적 존재감의 건축물이 구찌의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2023 크루즈 컬렉션 무대로 선택한 곳이다. 미켈레는 이곳에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탐구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1백1가지 룩의 방대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패션계의 철학자로 불려도 손색없는 미켈레를 사로잡은 건 독일의 문학평론가이자 철학가 발터 베냐민(Walter Benjamin)과 그의 별자리 사유였다. 이 천재 사상가에게 역사는 현재와 연결되지 않는 단순한 유물의 집합체가 아니다. 그는 지나간 과거는 현재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과거가 현재를 조명하거나 현재가 과거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형상은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 현재와

7

8

9

10

11

갑작스럽게 연결되면서 별자리를 형성하는 어느 지점에서 발생한다." _by 발터 베냐민(Walter Benjamin)

별자리는 베냐민으로 인해 철학적 개념으로 재탄생했다. 하늘의 별들처럼 언뜻 보기에는 흩어져 각자 고립된 듯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베냐민이라는 철학자의 눈을 통해 연관성을 지닌 집합체로 변화한다. 별자리는 과거와 현재,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작은 파편을 결합한 뜨겁고 빛나는 또 다른 세상인 것이다. 이 심오하고 초현실적인 사유가 구찌의 2023 크루즈 컬렉션 주제인 코스모고니(cosmogonie)로 태어났다. 미켈레는 언제나 해독하기 어려운 의미가 담긴 프리즘과 같은 컬렉션을 선보이곤 한다. 2023 크루즈 컬렉션 역시 프리즘처럼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우주론과 별자리의 이론처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디테일로 장식된 의상은 결코 허황되지만은 않다. 우아한 귀족풍의 숙녀, 십자군을 연상시키는 기사, 중세 초상화에서 본 듯한 소녀, 낭만적인 시대물의 여주인공, 1960~70년대 복고풍의 학생, 사이키델릭한 전사…. 시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의외의 스타일링과 파격적인 디자인의 소품 등은 충분히 아름답고 드라마틱했다. 미켈레에 의해 창조된 구찌의 패션 연금술은 관객들을 잠시 별이 빛나는 우주로 이끌었다. 견고한 요새처럼 보이는 성벽에 비친 파편 같은 별자리들, 자연 그대로의 현상으로 하늘에 떠오른 붉은 보름달, 끊임없이 이어지는 매력적인 모델들의 향연.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겐 마법과 같은 밤이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독창적이고도 복잡했던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컬렉션은 더 이상 구찌에서 볼 수 없을 듯하다. 그래서 더욱 기억에 남는 코스모고니의 밤. 그 아름답고 신비스러웠던 여정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12

14

1 겨내한 무대 위의 연극 같았던 구찌의 2023 크루즈 컬렉션의 피날레. 성벽에 비친 별자리 조명이 신비로움을 극대화한다. **2, 6, 9** 다양한 소품들을 자유분방하게 매치해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스타일링이 돋보이는 look들. **3–5** 복고풍의 프레피 룩을 보여준 모델들. **7, 8, 15** 댄디함을 보여준 수트에 과장된 액세서리의 언밸런스한 매치. **10–12**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딸기 모양의 가방, 나비이 레이스업 부츠 등 일상과 어울리지 않는 소품들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13** 성직자 에서 소걸까지, 101개의 방대하고 버라이어티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14** 실용적인 디자인의 핸드백도 선보였다. **16, 17** 모두 페이크 퍼를 사용한 모피 패션. **18** 밑단이 벨벳으로 장식된 중세풍 드레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폰스타일 드레스 차림의 신인이가 직접 참석해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19** 카스텔 델 몬테 성의 내부에서 하늘을 바라본 광경. 팔각형의 홀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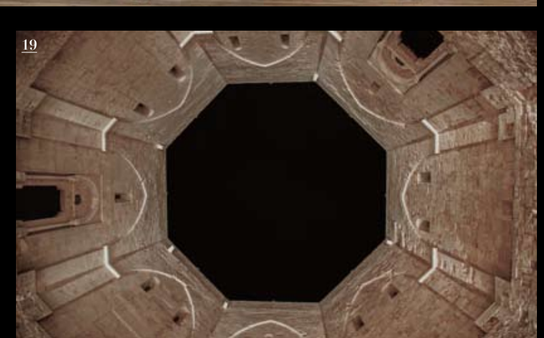
15

16

17

18

19



WISH LIST

Holiday

소중한 이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유종의 미를 장식할 연말. 아름다움에 특별함과 센스를 담아 더욱 완벽해진 홀리데이 기프트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ung, choi min young, kim sa yoon**

CARTIER

(주얼리 / 왼쪽부터) 웃어서 영감을 받아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감성을 전하는 자스트 영 골무 링으로 핑크 골드에 총 0.59캐럿의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777개를 세팅한 모델 1천만원대, 손목에 꼭 맞는 2개의 건고한 이자로 이루진 오벌형 브레이슬릿으로 전용 스크루 드라이버를 사용해 착용 가능한 열로 골드 소재의 LOVE 브레이슬릿 9백만원대, 웃어 한 모양의 핑크 골드 소재 모티브에 총 0.38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6개를 세팅한 자스트 영 골무 네크리스 9백만원대, 기존 LOVE 브레이슬릿에서 좀 더 얇아진 두께로 웨어러블하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핑크 골드 소재 LOVE 브레이슬릿 스몰 모델 5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밴드에 총 1.99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2백47개를 세팅해 화려한 무드를 선사하는 LOVE 브레이슬릿 6천만원대, 핑크 골드 소재의 옷 형태의 밴드에 총 0.18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20개를 세팅한 자스트 영 골무 브레이슬릿 스몰 모델 6백만원대, 핑크 골드 소재 밴드에 총 0.22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3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한 LOVE 링 5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문의 1877-4326

임정진, 홍지경 아시트네트 **신경원**

(오브제 / 왼쪽부터) 그린 · 레드 · 골드 컬러를 담아 싸고른 연출을 도와주는 다이블로 드 까르띠에 트렁킷 트레이 3개 세트 50만원대, 공간에 모던하면서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줄 핵심 드 까르띠에 화병 미디엄 사이즈 모델 1백만원대, 홀리데이 느낌을 물씬 풍기는 레드 컬러의 재떨을 담은 페이지 보이 캐릭터의 레커 골드 피나싱 메탈 소재 다이블로 드 까르띠에 키 링 60만원대, 세련을 빈틈 빠져나온 듯한 세 오브제가 놓여 있어 태엽을 감았다 풀면 다 비어 로즈 동안에 맞춰 화전하는 낭만적인 열로다 박스 다이블로 드 까르띠에 유리 박스 3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문의 1877-4326

POMELLATO

(위부터 차례대로) 18K 로즈 골드로 이루어진 밴드에 총 1.1캐럿의 38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우아함을 더한 이코니카 링, 이코니카 컬렉션 특유의 볼륨감을 잘 표현한 링으로 18K 로즈 골드 소재에 총 1.9캐럿의 오렌지 사파이어와 핑크 트루말린, 페리도트, 루비, 블루 지르콘, 블루 사파이어, 디맨토이드, 레드 스피넬, 탄자나이트, 차보라이트까지, 다양한 스톤으로 화려함을 더한 링, 18K 로즈 골드 소재의 볼륨감 넘치는 디자인으로 룩에 포인트가 되어줄 이코니카 링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문의 02-3143-9486

(위부터 차례대로) 브랜드 대표 컬렉션인 누도의 시그너처 디자인을 다이아몬드로 재해석한 주얼리로 18K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에 총 3.8캐럿의 1백37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볼륨감과 우아함을 더한 대표 링, 18K 로듐 플레이트 화이트 골드 밴드에 총 1.3캐럿의 64개 다이아몬드와 4.1캐럿과 6.5캐럿의 화이트 토파즈 2개로 반짝임을 극대화한 누도 브레이슬릿, 18K 화이트 골드와 로즈 골드 소재에 총 1.8캐럿의 1백5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누도 다이아몬드 링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문의 02-3143-9486

(위부터 차례대로) 18K 로즈 골드에 총 22.7캐럿의 화이트 토파즈 2개와 머더오브펄 2개, 총 14캐럿의 화이트 토파즈 2개와 머더오브펄 2개로 완성했으며, 착용하는 부분에까지 총 0.2캐럿의 18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우아함을 더한 드롭 스타일 이어링, 18K 로즈 골드 소재에 총 36.3캐럿의 화이트 토파즈 3개와 머더오브펄 3개를 비대칭으로 배치해 물방울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고 총 1.9캐럿의 2백19개 다이아몬드로 마무리해 볼륨감을 더한 리비에르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문의 02-3143-9486

(위부터 차례대로) 밀라노 특유의 절제된 우아함을 보여주는 이코니카 컬렉션의 브레이슬릿으로 18K 로즈 골드 소재로 이뤄진 엑스트라 슬림 브레이슬릿,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체인에 총 1캐럿의 80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포인트를 더한 엑스트라 슬림 with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문의 02-3143-9486

신비스럽고 관능적인 뱀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의 네크리스로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의 조합이 만들어낸 드롭 디자인이 목을 감싸며 눈부신 빛을 선사한다. 2백26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2.8캐럿과 18K 옐로 골드로 이뤄져 있다. 3천만원대 **부쉐론.** 02-3277-0148

브랜드 대표 컬렉션인 프리티 우먼 언컨디셔널 링으로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으로 볼륨감과 화려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프레드.** 02-514-3721

그라프 대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인 트라이벌 컬렉션 이어링으로 3.27캐럿과 2.66캐럿의 콜롬비아산 에메랄드를 세팅했으며, 그 주위를 총 5.7캐럿의 다이아몬드가 감싸고 있어 화려함을 극대화한다. 그 아래는 총 12.6캐럿의 에메랄드를 드롭 스타일로 마무리했다. 가격 미정 **그라프.** 02-6905-3330

화이트 골드로 이루어진 시그너처 로즈 드 방 디자인에 2.18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우아하게 완성한 네크리스 가격 미정 **디올 파인 주얼리.** 02-3480-0104

밴드 중앙에 동그라미와 사각형이 반복되며 회전하는 모티브를 표현한 모던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벨 에포크 릴 화이트 골드 다이아 링과 핑크 골드 다이아 링 가격 미정 **다미아니.** 02-515-1924

혜성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꼬메뜨 컬렉션의 링으로 18K 화이트 골드에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25개를 배치해 아름다운 밤하늘을 담았다. 2천1백20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080-805-9628

밝은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꾸준한 사랑을 받는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키 컬렉션의 펜던트로 플래티넘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티파니.** 02-6250-8620

아름다운 카네이션을 표현한 화이트 골드 소재에 2백2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34캐럿을 세팅해 화려한 꽃을 표현한 왜이에 브로치 4천만원대 **쇼메.** 02-3442-3359

각종 스톤을 주얼리로 제작하는 특별한 노하우를 적용한 피에르 드 케렉테르 컬렉션의 보라보라 이어링. 골드 컬처드 펄을 중심으로 다이아몬드와 핑크 오팔로 장식했다.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이탈리아어로 꽃을 의미하는 피오레와 영원을 의미하는 포에버를 합한 피오레버 컬렉션의 브레이슬릿으로 화이트 골드 소재에 중앙의 다이아몬드 1개와 주변에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까지 총 3.04캐럿으로 장식해 화려함을 준다. 6천6백만원대 **불가리.** 02-2056-0170

(위부터 차례대로) 브랜드 시그너처 컬렉션인 아이스 큐브 라인에서 선보이는 캐주얼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18K 로즈 골드 아이스 큐브 뱅글 6백60만원 **쇼파드** 02-6905-3390. 이탈리아어로 여성 가수를 뜻하는 판티나 컬렉션의 브레이슬릿으로 세련되고 강인한 여성을 모티브로 해 볼드하면서도 심플한 라인이 돋보인다. 18K 로듐 플레이트 화이트 골드에 총 2.6캐럿의 1백33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포멜라토** 02-3143-9486. 파베 세팅한 페어 컷 다이아몬드 모양 2개가 서로 얽힌 디자인으로 사랑으로 하나된 두 연인을 연상시키는 조세핀 듀오 에떼르넬 링. 18K 화이트 골드에 1.51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72개를 세팅했다. 1천9백만원 **쇼메** 02-3442-3359. 섬세한 화이트 골드 비즈로 장식한 밴드를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우아한 화려함을 더한 뻬를리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3천3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르네상스 시기의 여기사인 브라다만테를 표현한 링으로 0.7캐럿 센터 다이아몬드와 그 옆을 장식한 0.3캐럿 다이아몬드 2개, 프롱과 밴드에 세팅한 0.8캐럿 다이아몬드가 강인한 우아함을 표현한다. 3천5백만원대 **부첼라티** 02-6905-3490.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 전면 위에 있는 아틀라스 시계의 로마숫자에서 영감을 받은 아틀라스 X 컬렉션의 링으로 18K 화이트 골드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부분 세팅해 모던한 포인트를 주었다. 가격 미정 **티파니** 02-6250-8620. 브랜드 헤리티지 속 플라워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피오레버 컬렉션의 네크리스로 화이트 골드로 섬세하게 표현한 꽃잎과 그 위에 장식한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4.21캐럿,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 4.61캐럿이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한다. 1억3천9백만원 **불가리** 02-2056-0170. 벨 에포크 시대의 풍부함과 미학적 아름다움을 담은 벨 에포크 릴 컬렉션의 브레이슬릿으로 화이트 골드에 중앙 회전 모티브 양쪽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심플한 우아함을 전한다. 가격 미정 **다미아니** 02-515-1924.

OMEGA

(위부터 차례대로) 4세대 스피드마스터에서 영감받은 문워치. 18K 문샤인™ 골드 소재의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으로 제작했으며, 태양광 패턴의 그린 PVD '스텝' 다이얼과 '문워치' 스타일 핸즈를 갖췄다. 아이코닉한 DON(90위 도트 장식)이 포함된 세라 골드 타키미터 스케일의 그린 세라믹 베젤 링이 눈길을 끈다.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프로페셔널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42MM 5천1백90만원. 스테인리스 스틸과 18K 세드나™ 골드 소재로 현대적인 이미지를 그려낸다. 6시 방향엔 270도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위치하며, 초승달 모양의 4개 섹터와 절제된 대조 효과를 이끌어내는 마감 기법이 적용된 동일한 컬러의 언더 플레이트가 특징이다. 드 빌 프레스티지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파워 리저브 41MM 1천2백90만원. 모두 **오메가.** 문의 02-6905-3301

(왼쪽부터 차례대로) 태양광 패턴 마감 처리한 돔형 PVD 다크 블루 다이얼이 특징인 18K 세드나™ 골드 소재의 워치. PVD 처리한 세드나™ 골드 컬러 핸즈와 교차 배열된 로마숫자, 카보숑 인덱스의 깔끔한 디스플레이가 돋보인다. 또 3시 방향의 날짜창, 6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서브 다이얼, 외부 존에 장식된 레일웨이 디자인으로 기본적인 실용성에 충실했다. 드 빌 프레스티지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몰 세컨즈 41MM 1천6백70만원.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이 워치는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베젤과 화이트 자개 다이얼이 조화를 이뤄 손목에 화사함을 부여한다. 옐로 골드 도금 핸즈와 교차 배열된 로마숫자, 다이아몬드 마커의 디스플레이를 갖췄다. 또 6시 방향의 날짜창과 외부 존에 장식된 도트 모양 미닛 트랙의 디자인에서 기품이 느껴진다. 드 빌 프레스티지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34MM 2천6백80만원. 모두 **오메가.** 문의 02-6905-3301

(위부터 차례대로) 섬세한 골드 비즈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빼틀리 컬렉션. 18K 옐로 골드 23mm 케이스와 베젤을 장착했으며 18K 옐로 골드 기요세 다이얼이 기품을 더한다. 빼틀리 워치 1천3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베젤과 케이스 밴드에만 약 2.848캐럿의 1백46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눈부시게 빛나는 주얼리 워치. 플랜지, 프로스팅 또한 다이아몬드로 장식하고 약 0.59캐럿의 쿠션 컷 사파이어로 프릴을 세팅해 화려함을 더한 불량 드 레인 1억6천8백13만원 **브레게** 02-3479-1008. 오벌 형태 케이스에 1.29캐럿의 블루 사파이어를 세팅한 베젤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선사한다. 다이얼 안에서 움직이는 무빙 다이아몬드가 디테일한 재미를 주는 해피 스포츠 3천2백45만원 **쇼파드** 02-6905-3390. 18K 핑크 골드 소재의 32mm 케이스에 약 4.74캐럿의 42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부여했다. 자체 제작 501P1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하는 라임라이트 갈라 프레셔스 워치 9천1백만원 **피아제** 1688-1874. 슬림하고 심플한 실루엣으로 우아함을 극대화한 워치. 직경 30mm의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는 머더오브펄 다이얼이 장착되어 있으며 64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이 은은하게 빛난다. 트래디셔널 퀴즈 가격 미정 **바쉐론 콘스탄틴** 1877-4306. 로마의 카라칼라 욕장 모자이크 타일에서 영감을 얻어 유려한 곡선형의 부채꼴 모티브와 컬러 젬스톤을 결합한 미바스 드림 컬렉션. 로즈 골드 소재의 33mm 케이스에 12개의 다이아몬드 인덱스가 돋보이는 디바스 드림 주얼리 워치 7천4백40만원 **불가리** 02-2056-0170. 가로 24.4mm, 세로 40mm의 직사각형 스틸 케이스에 약 0.85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클래식함이 돋보인다.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68A를 장착한 리베르소 클래식 미디엄 듀에토 1천9백20만원 **예거 르쿨트르** 1877-4201.

핑크 골드 소재의 지름 40mm 케이스에 총 1.06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52개를 세팅해 화려함을 극대화했다. 블루 컬러 카보숑 컷 사파이어로 장식한 크라운에 로마자 다이얼을 더해 아이코닉함을 느낄 수 있는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워치 가격 미정 **까르띠에**. 1877-7277

18K의 아머 골드®(Armor Gold®) 소재 케이스와 하얀의 특성을 강조하는 블루 다이얼을 매치해 멋들어진 외관을 선보이는 포르투기저 투르비옹 레트로그레이드 크로노그래프 부티크 에디션 가격 미정 **IWC**. 1670-7363

1백22년 이상 정확하게 구동하는 정밀한 문페이즈를 탑재한 워치. 40mm 핑크 골드 소재 케이스에 모일과 월을 표시하는 컴플리케이션은 12시 방향에 위치한다. 블루 컬러의 날짜 표시창과 핸드가 돋보이는 FIFTY SIX® 컴플리트 캘린더 6천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1877-4306

스테인리스 소재의 42mm 사이즈에 다이얼의 컷아웃 디자인으로 정밀한 스위스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작동하는 모습을 엿보는 재미가 있는 재즈마스터 1백56만원 **해밀턴**. 032-320-7559

30mm 지름에 7.2mm 두께의 스틸 케이스, 민트 컬러 다이얼과 대비를 이루는 크로노그래프 카운터 슈퍼루미노바® 아랑 인덱스가 매력적이다. 또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내비타이머 B01 크로노그래프 41 1천2백70만원대 **브라이틀링**. 02-3448-1230

지름 44mm 케이스에 GMT 기능을 갖추었다. 선명한 셀룰라인 블루 핸즈를 통해 알기나 가까운 2개의 다른 시간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루미노르 바텐포 1천2백만원대 **파네라이**. 1670-1936

기요세 장식을 가미한 브라운 다이얼과 핑크 골드 소재의 36.8mm 케이스가 차분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을 주며 컴플리케이션의 배치가 독특한 매력을 주는 리틀 랑에 1 워치 6천8백만원대 **랑에 운트 죄네**. 02-3479-1349

다이얼과 스트랩의 짙은 그린 컬러가 감각적이다. 세로 45.6mm, 가로 27.4mm의 직사각형 스틸 케이스가 심플한 멋을 더하는 리베르소 트라뷰트 스몰 세컨즈 1천1백80만원 **예거 르쿨트르**. 1877-4201

전설적인 1957년 오리지널 스피드마스터에서 영감을 받은 40.5mm 모델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버건디 다이얼의 로듐 도금 아워 마커가 돋보이는 스피드마스터 '57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40.5MM 1천1백40만원 **오메가**. 02-6905-3301

RALPH LAUREN COLLECTION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랜드를 상징하는 스포츠인 승마 모티브에서 영받은 디자인으로 말안장에 달린 등자의 매끄러운 윤곽을 표현했다. 수공예 소가죽으로 제작해 더욱 정교하며, 특히 백 플랩 부분의 스터럽 버클이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주는 카프 스킨 소재의 웰링턴 숄더백 2백20만원대, 같은 웰링턴 컬렉션의 백으로 패치워크 트위드 소재가 돋보이는 웰링턴 크로스 보디 백 2백90만원대, 클래식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기본 로퍼에 브랜드 시그너처인 스터럽 버클로 포인트를 준 버니시드 카프 스킨 소재의 웰링턴 로퍼 80만원대 모두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왼쪽부터 차례대로) 가장 클래식하고 모던한 컬러인 화이트에 블랙 라이닝을 더한 스터럽 버클이 돋보이는 카프 스킨 소재 웰링턴 컬러 블록 크로스 보디 백 1백90만원대, 블랙과 화이트 조합에 펀칭 디테일로 여성스러움을 더한 카프 스킨 소재 컬러 블록 슬링백 펌프스 1백10만원대 모두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FERRAGAMO

(왼쪽부터 차례대로) 두꺼운 웨지 스타일의 힐로 글램하고 청키한 느낌을 주며 빈짝임이 있는 골드 컬러로 마감 처리해 홀리데이 무드를 물씬 느끼게 해줄 소나 샌들, 발목의 긴장니 버클 스트랩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1백49만원. 브랜드의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장인 정신이 특징인 아이코닉 톱 핸들 백으로 고급스러운 카프 레더 소재, 변함없는 디자인과 컬러감이 럭셔리한 클래식함을 표현한다. 3백29만원. 모두 **페라가모.** 문의 02-3430-7854

(왼쪽부터 차례대로) 브랜드의 스타일과 아이덴티티를 담은 아이코닉 톱 핸들 백 화이트 컬러, 카프 레더 소재에 골드 메탈 버클 장식으로 클래식한 우아함을 경험할 수 있다. 3백29만원. 브랜드 시그너처 디자인으로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디한 트위스트를 가미해 심플한 룩에 포인트를 주는 라미네이트 코트 레더 소재의 바라 타르탄 펌프스 1백19만원. 모두 **페라가모.** 문의 02-3430-7854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랜 시간 질리지 않을 클래식한 디자인의 블랙 슈즈로 구조적이면서도 섬세하게 각진 디자인이 세련된 느낌을 선사한다. 보 장식 위에 반구형 버클과 페이턴트 레더 소재로 반짝임을 주어 글래머러스한 느낌을 추가한 카트린 펌프스 1백25만원.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슈즈인 바라 펌프스의 새로운 버전으로 세미 스퀘어드 토와 바라 보로 포인트를 주었다. 로 힐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 데일리 슈즈로 안성맞춤인 고트 스웨이드 소재의 카트린 펌프스 1백9만원. 클래식한 디자인에 현대적인 비율과 크기로 구조적인 느낌과 세련미를 구현한 아이코닉 톱 핸들 백 블랙 3백5만원. 모두 **페라가모.** 문의 02-3430-7854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래식한 첼시 부츠 스타일에 업타운 트위스트를 가미해 포인트를 준 카프 레더 소재의 컨템퍼러리 제네시오 부츠. 아몬드 형태의 팁과 어퍼 부분을 가로지르는 2개의 얇은 스티칭 라인이 개성 있는 연출을 돕는다. 1백75만원. 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과 블랙 컬러로 시크한 룩 연출을 도와줄 카프 레더 소재의 도피오 간치니 백 1백45만원. 가장자리가 라운드 형태를 띠며 곡선의 아름다움과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적 감성을 더한 도피오 간치니 백 블루 컬러 1백45만원. 크로스 보디로 연출하기 적절한 사이즈와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슬롯 등 실용적인 수납공간을 갖춰 캐주얼하게 매치할 수 있는 도피오 간치니 백 그레이 컬러 1백45만원. 모두 **페라가모.** 문의 02-3430-7854

그래픽적인 디테일의 7.5cm 러버 블록 힐이 우아하면서도 캐주얼한 무드를 선사하는 블랙 유광 송아지가죽 소재의 D-DOLL 펌프스 가격 미정 **디올.** 02-3480-0104

1천2백60개의 알루미늄 톤 스퀘어 시퀸을 사용해 섬세하게 수공 자수로 완성한 알루미늄 톤 시퀸 리-에디션 바게트 백 6백만원대 **펜디.** 02-3479-1271

기하학적인 주머니 모양에 터키석, 말라카이트, 픽처 재스퍼, 라피스, 큐빅 지르코니아 등 다양한 스톤으로 장식한 이어링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레진 소재의 볼 펜던트 사이사이에 라인 스톤 디테일의 론델 링을 넣어 화려하게 완성한 쇼트 네크리스 2백55만원 **돌체앤가바나.** 02-3442-6888

블링블링한 골드빛의 램 스킨 소재 스냅 버튼으로 편하게 오픈과 클로징이 가능해 실용적인 라미네이트 텍스타일 골드 클러치 가격 미정 **셀린느.** 02-549-6631

상징적인 숫자인 5를 이루는 18K 베이지 골드 위에 3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총 0.62캐럿을 세팅했으며, 다양한 스타일로 착용 가능한 이터널 N°5 이어링 1천6백90만원 **샤넬 화인 주얼리.** 080-805-9628

크리스털 장식의 메탈릭 나파 가죽으로 이뤄진 록스터드 스트랩 샌들로 발목까지 올라오는 앵클 스트랩이 글램한 무드를 더한다. 1백95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3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트위드 하트에 로고 장식으로 마무리한 포인트 브로치 가격 미정 **샤넬.** 080-805-9628, chanel.com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는 스터럽 모양의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케이스에 블랙 앨리게이터 레더 스트랩과 화이트 다이얼을 매치해 클래식한 무드를 선사하는 스몰 로즈 골드 스터럽 워치 1천2백90만원대 **랄프 로렌 워치 & 파인 주얼리.** 02-3467-6560

카프 레더 소재에 부드럽게 곡선으로 휜 톱 부분이 여성스러움을 더하는 트리폴리오 숄더백 2백75만원 **페라가모.** 02-3430-7854

단단한 브라스 소재에 진주와 크리스털을 매치한 백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원더 링. 가방 손잡이에 부착해 여러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다. 가격 미정 **델보.** 02-517-8322

18K 옐로 골드 소재 밴드에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84개로 장식한 LV 모티브로 포인트를 준 LV 볼트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루이 비통.** 02-3432-1854

MCM

(위부터 차례대로) 부드러운 스페니시 레더 소재에 24K 도금 메탈 로고로 마무리해 클래식하면서도 글램한 감성을 선사하는 체인 지갑. 길이 조절 가능한 체인 스트랩이 있어 숄더, 크로스 등으로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다. 69만원. 부드러운 나파 양가죽에 24K 도금의 금속 로고 장식이 포인트인 호보 백 스타일의 미니 모드 트라비아 숄더백 1백25만원. 유쾌한 우디 플로럴 향의 향수로 헤리티지 금속 장식과 손잡이가 있는 베를린 골드 비세토스 스타크 백팩 형태의 보틀 케이스가 매력을 더하는 MCM 울트라 오 드 퍼퓸 50ml 10만5천원. 모두 **MCM.** 문의 1600-1976

MONTBLANC

(왼쪽부터 차례대로) 몽블랑산에서 영감받아 디자인되었으며 전 세계 오직 1백 개 한정이라 더욱 특별하다. 박스를 여는 쪽 반대편 외관에는 몽블랑 홀리데이 캡슐 컬렉션의 디자인을 더해 홀리데이 느낌을 가미했다. 어드벤트 캘린더 전용 여섯 가지 제품을 포함한 총 24가지 아이템이 벨트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다. 해피 홀리데이 어드벤트 캘린더 7백38만원. 과거 몽블랑의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받은 파우치. 산을 배경으로 몽블랑의 스키 마스코트가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만년필과 함께 스키를 타는 위트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마이스터스틱 홀리데이 캡슐 컬렉션 파우치 1백17만원. 부드러운 촉감의 레더 소재로 소지품을 바로 꺼낼 수 있는 프런트 지퍼 포켓으로 편리함을 더했다. 몽블랑의 시그너처 컬러인 제트블랙과 새로운 블루 컬러, 두 가지로 출시했다. 마이스터스틱 셀렉션 소프트 백팩 1백71만원. 모두 **몽블랑.** 문의 1877-5408

디자이너 톰 브라운의 반려견 헥터를 모티브로 한 시어링 소재의 헥터 백 4백90만원대 **톰 브라운.** 02-3478-4138

2005 S/S 패션쇼에 등장했던 마크 제이콥스의 곰 디자인을 재해석한 모노그램 테디 베어 가격 미정 **루이 비통.** 02-3432-1854

베어 모티브에 시그너처 체크를 더한 면 소재의 백팩 1백22만원 **버버리.** 080-700-8800

대형 발포 고무 타이어와 센트럴 조인트 서스펜션, 손쉬운 방향 조절이 가능한 핑거팁 푸시로 편안한 주행감을 선사하는 스트롤러 부가부 폭스 3 2백만원대 **부가부.** 1577-0608

네덜란드의 작가 딕 브루너가 창조해낸 세계적인 캐릭터 미피를 모티브로 한 크리스털 오브제 45만원 **바카라.** 02-3448-3778

트랜스 액슬 방식으로 작동하는 클래식 카 디자인의 유아용 모빌리티 3백98만원 **디트로네.** 1544-1946

자수로 팬더의 얼굴을 구현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부티 슈즈 가격 미정 **에르메스.** 02-542-6622

중앙의 지퍼로 입고 벗기 편한 패디드 오버올 가격 미정 **몽클레르 앙팡.** 0030-8321-0794

아티스트 지안파올로 파니가 하우스의 상징적인 말 모티브를 재해석해 디자인한 흔들 목마 가격 미정 **에르메스.** 02-542-6622

1950년대의 모나코 그랑프리 프린트를 전면에 더한 캐시미어 블랭킷 7백만원대 **로로피아나.** 02-6200-7799

(왼쪽부터 차례대로) 블랙 페퍼와 구운 육류, 올리브 등이 느껴지는 복합적이고 풍만한 아로마가 고급스럽다. 진한 바이올렛 빛깔이지만 맑고 투명해 신비롭다. 750ml 15만원 **1865 셀렉티드 콜렉션 데저트 밸리 시라** 02-856-5306. 실크처럼 보드라운 텍스처, 블랙베리와 다크 초콜릿의 농밀한 풍미가 이름처럼 강렬하다. 강한 타닌이 마지막까지 여운을 남긴다. 750ml 7만원대 **섹슈얼 초콜릿** 02-6401-2291. 템프라니요 품종 특유의 스모키한 풍미를 베이스로 젖은 나무 향, 가죽 향과 같은 익숙하고 편안한 향이 조화를 이룬다. 묵직한 목 넘김이 매력적이다. 750ml 8만원 **발데리즈 데 치리파** 02-535-8407. 화려한 루비 빛깔이 아름답다. 체리, 블루베리, 민트, 후추의 아로마로 시작해 존재감 강한 타닌이 잔상을 남긴다. 750ml 9만원대 **도멘 데 호슈 네브 떼르 쇼드 소뮈르 상피니** 051-746-2553. 섬세한 아로마와 미네랄 풍미로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와인. 산도가 도드라진다. 750ml 7만3천원 **사셀라** 02-479-2341. 자두, 건포도, 무화과 등의 과실 향 뒤에 톡 쏘는 후추 향이 따라온다. 스모키하면서도 짭조름한 풍미로 육즙이 풍부한 음식과 곁들이기에 좋다. 750ml 6만원대 **수카르디 큐 말벡** 02-2631-4162. 검은 과일과 다크 초콜릿, 흙 아로마가 특징. 촘촘하고 견고하면서도 부드럽게 입안을 휘감는 타닌, 묵직한 풀 보디가 인상적이다. 750ml 9만원대 **파스칼 샬롱 우르사 메이저 루즈** 010-3606-4913. 타닌은 벨벳처럼 매끄럽고 질감은 풍성하다. 검은 과일과 제비꽃, 흑후추, 담뱃잎과 같은 풍미가 은은하게 지속된다. 750ml 10만원대 **누만시아 누만시아** 02-631-5817.

객원 에디터 **김현진**

포뮬러가 가볍지만 판야나무 꽃 추출물을 함유해 바르는 순간 보송한 피부 표현이 가능한 매트 글로우 쿠션 14g 8만8천원 **버버리 뷰티.** 080-850-0708

황금색 오벌 형태 장식이 캔들의 열기에 의해 빙글빙글 돌면서 홀리데이 분위기를 연출하는 까루셀 & 캔들 베이 세트 190g 18만2천원 **딥티크.** 02-3446-7479

크리미한 텍스처가 영양감과 보습감을 주는 동시에 우아한 광채를 표현하는 뗑 벨루아 30ml 13만원대 **뽀아레.** 02-310-5025

오렌지 블러섬, 재스민, 투베로즈 향과 함께 부드럽고 실키한 거품으로 클렌징해주는 랑떼르디 샤워 오일 200ml 6만8천원대 **지방시 뷰티.** 080-801-9500

땀이나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선명한 컬러감을 자랑하는 롱웨어 크림 섀도우 스틱 메리 & 브라이트 컬렉션 선라이즈핑크 1.6g 5만원대 **바비 브라운.** 02-6971-3225

달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의 르 베르니. 왼쪽부터 963 수퍼 룬, 347 에뚜왈, 965 클레르 드 룬, 각 13ml 3만6천원 **샤넬.** 080-805-9638, www.chanel.com

관능적인 오드 향에 바닐라와 샌들우드 향을 입혀 부드럽고 한층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라르 & 라 마티에르 오드 누드 100ml 49만원 **겔랑.** 080-343-9500

파우더, 하이라이터, 아이섀도, 섀딩, 블러셔 등 구성이 다양한 앰비언트 라이팅 에딧 팔레트 버터플라이 8.4g 11만8천원 **아워글래스.** 1644-4490

매끄러운 발림성, 에지 있는 컬러, 선명한 발색을 자랑하는 디올 어딕트 립스틱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456 코스믹 핑크 3.2g 5만1천원대, 패션 케이스 3만7천원대 **디올.** 080-342-9500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피부 장벽 보호에 도움을 주는 브라운 알개 활성 성분과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손 피부의 회복을 돕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는 리쥬브네이팅 핸드 세럼 30ml 6만5천원대 **라부르켓** 1644-4490. 차가운 느낌의 쑥과 포근한 머스크 향의 대조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향을 완성한 압생트 보레알 100ml 28만원 **메종 크리벨리** 02-3444-2203.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항산화 포뮬러를 포함해 피부 진정 효과가 탁월한 H24 하이드레이팅 앤 에너자이징 페이스 모이스춰라이저 100ml 9만원 **에르메스** 02-310-5174. 새틴처럼 부드럽게 발리며 고급스러운 광채를 선사하는 로터스 래디언스 하이라이터 4g 10만9천원 **상테카이** 070-4370-7511. 오일과 왁스, 시어버터가 믹스되어 크리미한 텍스처가 특징이며 입술에 세련된 광채를 연출하는 리퀴드 립스틱 바이닐 팬텀 2.5g 6만9천원 **바이레도** 02-3479-1688. 오직 2022 F/W 시즌에만 만나볼 수 있는 한정판 매트 립스틱으로 강력한 발색력을 선사하는 루즈 에르메스 매트 립스틱 루즈 그르나 81 3.5g 10만1천원 **에르메스** 02-310-5174. 탄탄한 피부를 선사하는 세 가지 활성 성분이 단 한 번의 펌핑으로 필요한 양을 전달하고, 섞어 바르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고성능의 레네르지 트리플 세럼 50ml 22만원대 **랑콤** 080-022-3332. 재스민을 중심으로 조합된 향에 샌들우드와 벤조인 베이스 노트를 더한 플로라 고저스 자스민 오 드 퍼퓸 100ml 22만5천원 **구찌 뷰티** 080-850-0708. 100%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자극 없이 노폐물을 제거하고, 클렌징 후에도 보호막을 형성해 오랜 시간 보습력을 유지해주는 센티아쥬™ 핸드 워시 미스터리 포 에브리바디 300ml 3만8천원 **바니스뉴욕 뷰티** 1644-3456. 휘핑크림 제형에 풍부한 필수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으로 칙칙한 톤과 거친 피부결을 맑고 부드럽게 개선하는 바디 수플레 200ml 5만2천원 **모로칸오일** 1666-5125. 독보적인 텍스처와 인텐스 피그먼트로 오랫동안 선명하게 지속되는 컬러가 특징인 옹브르G 홀리데이 아이섀도우 쿼드 멀티 이펙트 골든 스타 4 X 1.5g 12만2천원 **겔랑** 080-343-9500.

share the romance

행복한 홀리데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피아제의 스페셜 기프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홀리데이 시즌. 상대의 높은 안목을 고려한 기프트를 준비하고 있다면 1백48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피아제 주얼리와 워치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스위스 쥐라산맥의 라 코토페(La Côte-aux-Fées)라는 작은 마을에서 탄생한 피아제. 1874년, 19세의 조르주 에두아르 피아제는 워치메이킹을 향한 열정을 품고 가족 농장에 자신의 첫 번째 공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도로 정밀한 무브먼트와 부품을 만드는 데 전념했다. '언제나 완벽, 그리고 그 이상을 추구하라'라는 모토는 스스로를 끊임없는 발전으로 이끌었고, 이는 피아제 메종의 대성공으로 이어졌다. 정교한 무브먼트 제작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 있는 정통 워치 메이커로서, 그리고 화려한 세공 기술력을 보유한 주얼리 메이커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것. 이처럼 유구한 장인 정신이 깃든 선물이라면 연말 기프트로 완벽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 1668-1874

(왼쪽부터 차례대로) **포제션 랠리스 데코 링**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링. 볼드한 디자인에 중앙에 약 0.08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를 세팅해 아름다운 볼륨감을 선사한다. 8백만원대. **플로 스켈레톤 워치 42mm** 울트라-신 워치메이킹의 장인, 피아제. 올해 기존 폴로 워치보다 두께가 3mm 얇아진 6.5mm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라운드 베젤을 장착한 곡선형 케이스와 쿠션형 다이얼은 기존 피아제 폴로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스틸 소재 케이스와 사피어 크리스털 케이스 백이 간결한 멋을 더하며, 1200S1 기계식 셀프 와인딩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4천2백10만원. 문의 1668-1874

(왼쪽부터 차례대로) **선와이트 랠리스 데코 펜던트** 타원을 가장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로 여기는 피아제에서 선와이트 컬렉션은 6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응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K 핑크 골드 소재의 펜던트 센터에는 약 0.35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약 0.9캐럿의 1백58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알티플라노 문페이즈 36mm** 심플함의 정수를 보여주는 알티플라노 워치. 18K 핑크 골드 소재의 울트라-신 케이스에 약 0.94캐럿의 74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약 3.23캐럿의 머더오브펄 다이얼을 매치했다. 6시 방향에 세팅한 피아제 자체 제작 580P 문페이즈 인디케이터가 포인트. 5천3백만원. **포제션 랠리스 데코 링** 회전하는 모티브를 담아 경쾌함을 표현하는 포제션 컬렉션의 링. 18K 핑크 골드 소재로, 중앙에는 약 0.08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전체에는 약 1.93캐럿의 68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밀하게 세팅했다. 2천10만원. 에디터 **윤자경**

Lovely Holiday

설렘과 따뜻함으로 가득한 연말,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전해줄 특별한 기프트가 고민된다. 이런 마음을 꿰뚫듯
피아제가 2022년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새로운 캠페인을 공개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전할 시기가 찾아왔다. 열 마디 말보다 더 진한 감동을 전해줄 선물을 찾고 있다면 심미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주얼리와 시계를 추천한다. 특히 1백50년의 긴 역사, 주얼리와 워치를 향한 장인 정신이 깃든 피아제라면 후회 없을 것. 주얼리에서 단연 돋보이는 예술성, 세상에서 가장 얇은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워치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 화려한 금세공 기술력, 또 피아제만의 독보적인 고급스러움까지. 피아제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때마침 피아제는 2022년 홀리데이 캠페인을 공개했다.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할 네 가지 컬렉션을 소개한다. 우선 1979년 탄생한 피아제 폴로가 있다. 피아제는 당시 럭셔리 스포츠로 여겨지던 폴로에서 영감을 받아 골드 소재의 피아제 폴로 워치를 세상에 선보였다. 이후 해당 컬렉션을 통해 브랜드 역사상 이례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계에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하는 등의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피아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면서도 관습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한 시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피아제의 트레이드마크인 형태 속의 형태(shape-within-shape)를 적용한 피아제 폴로 컬렉션은 라운드 케이스에 쿠션 형태의 페이스를 매칭해 유니크함을 표현했다. 그다음은 간결함의 미학을 보여주는 알티플라노. 피아제는 1950년대부터 혁신적으로 얇은 무브먼트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도전해왔다. 1957년 마침내 제네바에서 두께가 단 2mm에 불과한 9P 무브먼트를 선보이게 된다. 우아한 실루엣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9P는 곧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아제는 알티플라노 울트라-신 컬렉션을 통해 울트라-신 워치 분야의 독보적인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다.
메종은 수십 년 동안 태양을 가장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여겼다. 그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컬렉션이 바로 선라이트. 이 컬렉션에는 최고급 소재를 사용하면서 약 60년 동안 축적한 피아제만의 정교한 디자인과 노하우를 담은 네크리스와 이어링이 포함된다. 1960년부터는 피아제 메종만의 독보적인 역량을 담은 팰리스 데코 마감 기법을 사용했는데, 기요셰 기법에서 영감을 받아 불규칙한 라인으로 만든 질감으로 골드가 천연 실크 느낌을 연상시키며 눈부신 광채를 내뿜는다. 이러한 펠리스 데코 기법은 골드 브레이슬릿에 가장 먼저 사용되었고, 이는 메종 고유의 시그너처로 자리 잡았다. 그야말로 피아제만의 유서 깊은 헤리티지를 담아냄과 동시에 현대적인 매력을 구현한 것.
마지막으로 회전하는 모티브를 담아 유쾌함을 표현한 포제션 컬렉션을 소개한다. 그동안 주로 모던한 디자인 위주였던 피아제는 메종의 클래식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련되고 유쾌한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 포제션 컬렉션을 만들었다. 포제션 컬렉션 제품의 경우 여러 피스를 착용하거나 다양한 컬러 또는 사이즈를 믹스 매치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문의 1668-1874 에디터 **윤자경**

1 피아제 폴로 스켈레톤 42mm. **2** 선라이트 컬렉션의 이어링과 링. **3** 18K 골드 소재의 포제션 링. **4** 선라이트 컬렉션의 펜던트. **5**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포제션 링. **6** 알티플라노 문페이즈 38mm.

Holiday Dream

크리스마스에 꼭 받고 싶은 선물. 샤넬 하우스의 정신이 온전하게
깃든 N°5 향수와 달에서 영감받아 더욱 특별해진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바디 오일.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N°5 오 드 빠르펭 100ml 24만2천원, N°5 골드 바디 오일 250ml 14만6천원.

샤넬 하면 떠오르는 전설적인 N°5. 조향사 에르네스트 보(Ernest Beaux)가 제안한 24개의 향수 샘플 중 가브리엘 샤넬이 다섯 번째 향수를 선택하면서 시작되었다. 1921년 가브리엘 샤넬은 '여성의 향기를 지닌 여성용 향수'를 만들고 싶어 했다. 한 가지 꽃향기만 담던 당시 조향업계의 고정관념을 깨고 80여 가지 성분을 담은, 시대를 초월하는 향수를 탄생시키면서 N°5의 전설이 시작된 것. 그리스 자방에서 나는 메이로조와 재스민에 샤넬의 비밀 합성 원료인 알데하이드(aldehyde)를 조합해 전례 없는 플로럴 향을 탄생시켰다. 여기에 바닐라 어코드가 부드럽게 퍼져 관능적인 잔향을 선사한다. 또 N°5 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보틀. 가브리엘 샤넬이 리츠 호텔 자신의 방 발코니에서 즐겨 보던 빙돌 광장의 모습을 본떠 만든 카보숑(cabochon) 컷 뚜껑과 사각 보틀을 미니멀하게 재해석해 조각했다. 이렇게 1백 년이 넘는 오랜 기간 사랑받은 N°5는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해 더욱 특별한 모습으로 선보인다. N°5 골드 바디 오일이 바로 그것. 이름에서 알 수 있듯 N°5 향에 가벼운 플루이드 포뮬러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매끄럽게 가꿔준다. 무엇보다 달에서 영감을 받은 진귓빛 골드 스파클은 피부에 은은한 광채를 선사한다. 샤넬 N°5의 모든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담은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놓치지 말 것.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에디터 **윤자경**

Elegant Reel

이탈리아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우아한 주얼리를 제작하는 다미아니의 새로운 벨 에포크 릴 컬렉션.

1 2 3

4

5

1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양쪽에 파베 세팅한 벨 에포크 릴 화이트 골드 다이아 네크리스. 2 옐로 골드 소재의 벨 에포크 릴 옐로 골드 네크리스. 3 핑크 골드 소재의 벨 에포크 릴 핑크 골드 네크리스. 4 벨 에포크 릴 컬렉션의 링과 브레이슬릿, 네크리스를 매치한 배우 손석구. 5 화이트 · 핑크 ·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 버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착용 가능한 벨 에포크 릴 링 컬렉션.

벨 에포크는 지난 시대에 대한 향수를 담고 있는 단어다.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절'이란 의미로 주로 19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프랑스가 사회 · 경제 · 기술 · 정치적 발전으로 번성했던 시대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시대적 의미를 지닌 단어를 컬렉션명으로 사용한 주얼리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 것만 같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다이아니의 벨 에포크 컬렉션이다. 1백여 년 전통의 이탈리아 하이 주얼리 브랜드답게 금세공 장인이자 다미아니 창립자인 엔리코 다미아니는 찬란했던 벨 에포크 시대의 황홀함과 낙천주의에 찬사를 보내며 다미아니 벨 에포크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모던하고 클래식해 보이는 디자인에는 우아함과 스톤의 베리에이션이나 형태에 따라 화려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과감함을 담았다. 특히 이번에 새로 탄생한 벨 에포크 릴(Belle Époque Reel) 컬렉션은 기존의 벨 에포크 컬렉션과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좀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발전해 현대적이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영화 필름의 '릴'처럼 스스로 회전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한 것이 가장 인상적인데, 가운데 나열한 원과 직사각형이 돌아가면서 소셜 피드에서 볼 수 있는 비디오처럼 무한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추상적으로 재현한다. 상징적인 의미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미적 요소도 선사하는 것. 이로써 벨 에포크 릴 컬렉션은 기존 벨 에포크 컬렉션과 같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이 착용해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며, 어떤 룩에나 매치하기 쉬운 세련된 감성을 완성했다. 벨 에포크 릴 컬렉션은 다미아니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철학으로 현대적이고 다이내믹한 트렌드세터에게 헌정하는 링, 네크리스, 이어링과 브레이슬릿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래식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 가능하다.

회전할수록 깊이를 더하는 아름다움

다양한 작품으로 연기력과 캐릭터의 매력에 깊이를 더해가는 배우 손석구가 다미아니 코리아 엠배서더로 선정됐다. '벨 에포크', 즉 좋은 시대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지금 가장 빛을 발하고 있는 그와 벨 에포크 릴 컬렉션은 한마디로 환상의 궁합이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역할로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와 현대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디자인의 벨 에포크 릴 컬렉션은 어딘가 닮았다. 벨 에포크 릴 컬렉션의 네크리스부터 링, 브레이슬릿까지 착용하고 화보 촬영에 임한 그의 모습은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배우로서의 매력을 발산한다. 여성은 물론 남성이 착용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질감 없으며 아름답게 매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뿐 아니라 심플한 의상에 매력적인 포인트로도 훌륭한 역할을 한다. 이는 벨 에포크 릴 컬렉션의 모던하고 현대적이며 우아한 감성의 디자인 덕분이다.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배우 손석구처럼 벨 에포크 릴 컬렉션 역시 여러 방식으로 레이어링 가능하며 어떤 식으로 매치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회전하는 모티브라는 의미를 담은 만큼 장인 정신을 더한 이탈리아 주얼리 브랜드로서의 가치 역시 놓치지 않았다. 화이트 · 옐로 · 핑크 골드 버전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버전을 더해 화려함을 추가할 수도 있다. 다가오는 연말, 벨 에포크 릴 컬렉션으로 여성, 남성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소중한 의미의 선물로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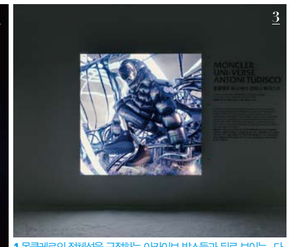
문의 02-515-1924 에디터 **성장민**

1

the extraordinary expedition

지난 11월 18일, 성수동 디뮤지엄에 새하얀 설원이 펼쳐졌다. 몽클레르의 선구적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일곱 가지 아카이브 박스와 걸출한 디자이너와 함께한 고유한 열 가지 룩까지. 이를 통해 브랜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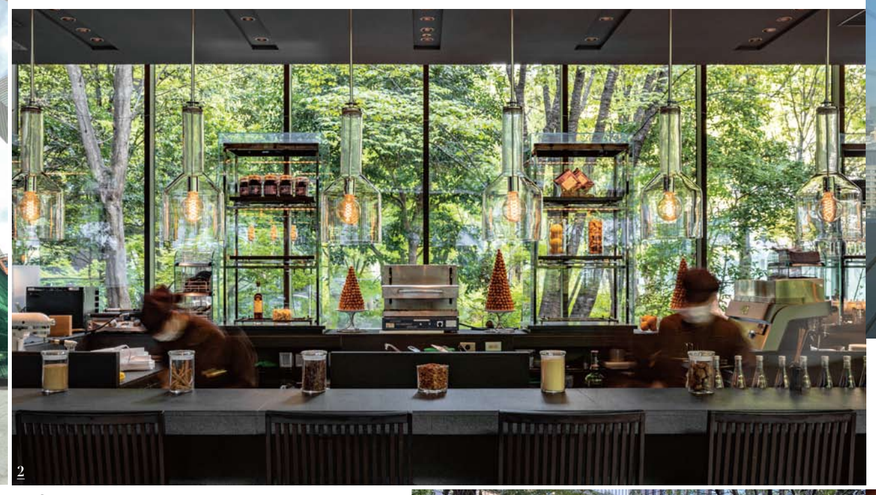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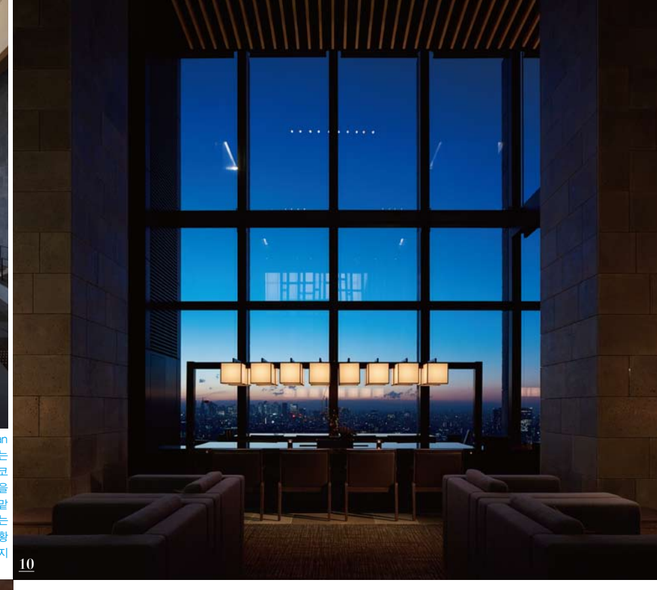
1 몽클레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카이브 박스들과 뒤로 보이는, 다른 패션 디자이너들과 함께한 몽클레르 패션 피스. 2 프리 오프닝 이벤트에 참석한 앰배서더 황민현. 3 안토니 투디스코와 협업해 선보인 한정판 NFT. 4 1952년 몽클레르의 첫 작품, 패딩 점낭.

4

몽클레르의 70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5일 뉴욕에서 시작된 '비범한 탐험'이 런던을 걸쳐 서울에 상륙했다. 런던에서는 프리즈 아트 페어(Frieze Art Fair)와 같은 기간 진행되었고, 중국에서는 가상현실 전시를 통해 디지털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다음 도쿄를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마무리할 예정. 몽클레르 하면 설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 성수동 디뮤지엄 전시장의 문을 열자마자 설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새하얀 인공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서울 관람객들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서사가 담긴 디자인, 영상과 소리, 안개까지,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요소로 더욱 풍성하고 입체감 있는 전시가 준비되어 있었다. 또 QR코드를 통해 아카이브 박스와 몽클레르 피스의 추가적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꼼꼼한 기획이 돋보였다.

전시는 세 가지 주요 콘셉트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공간은 '비범한 경험'이라는 주제로 산을 도심으로 가져와 몽클레르의 선구적인 역사를 보여준다. 공간 중앙에는 3D로 구현한 지형과 벽을 타고 이어지는 CGI 애니메이션, 브랜드 유산과 가치를 설명하는 몰입형 영상이 재생된다. 눈과 안개같이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가 더해져 더욱 실감 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비범한 순간들'에서는 7개의 투명한 아카이브 박스로 70년간 이어온 몽클레르의 브랜드 정체성을 규정하는 주요 이벤트를 보여준다. 이를테면 1952년 지금의 다운 재킷을 탄생시키는 데 영감을 준 몽클레르의 첫 번째 작품, 패딩 점낭, 1954년 탐험가가 K2 정상을 성공적으로 등산할 수 있도록 재킷, 1968년 동계 올림픽 때 우승한 프랑스 국가 대표팀이 착용한 재킷, 1980년 밀라노 젊은이를 뜻하는 파니라니가 착용한 재킷, 2016년 톰 브라운 테일러링의 미학과 몽클레르의 기능성을 융합한 감므블루 라인과 스노보딩에 초점을 맞춘 몽클레르 그레노블까지. 마지막 세 번째 챕터는 '비범한 디자인'이다. 챕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리처드 퀸, 톰 브라운, 럭 오웬스, 피에르파올로 피치올리, 크레이그 그린, 팜 엔젤스 같은 걸출한 디자이너나 브랜드와 함께한 몽클레르의 패션 아카이브 중 가장 아이코닉한 아트피스를 만나볼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디지털 아티스트 안토니 투디스코와 협업해 5백 명의 관람객에게 서울에서 영감받아 선보인 NFT를 선물로 증정했다. 해당 NFT는 로열티 티어에 소속되는 한정판 NFT로, 몽클레르 제품과 이벤트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우선권도 함께 주어진다. 이번 전시 프리 오프닝 이벤트에는 몽클레르의 앰배서더 황민현과 이성경이 브랜드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아이코닉한 마야 재킷을 7명의 디자이너가 재해석한 '몽클레르 마야 70 컬래버레이션'을 착용하고 참석했다. 에디터 **윤자경**





1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도쿄 지요다구 오테마치에 늘씬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오테마치 타워. 부지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아만 도쿄(Aman Tokyo)가 2014년 이 건물에 들어섰다. 아만 브랜드 최초로 대도시 중심가에 자리한 '시티 호텔'. 2 오테마치 타워 앞에는 2백 개 넘는 생태종이 자리는 '오테마치 포레스트(Otemachi Forest)'가 있다. 그 숲에 둘러싸여 있는 프런치 스타일 카페 더 카페 바이 아만(The Café by Aman)' 내부. 3 점심 코스와 디저트, 애프터는 티 등을 즐길 수 있는 더 카페 바이 아만. 4, 5 참신한 젠 스타일의 아만 도쿄 객실은 도쿄 호텔에서도 내로라하는 뛰어난 전망을 갖췄다. 6 도쿄 시내를 품은 경치를 즐기며 하노키 향 스민 목욕을 할 수 있는 욕실이 모든 객실에 있다. 7 아만과 협업한 건축가 케리 힐(Kerry Hill)이 말은 디자인 감각이 돋보이는 로비(33층). 8 전통적인 에도매(Edomae) 스타일의 스시를 공예 장인들의 손길이 두루 스민 아름다운 공간에서 맛볼 수 있는 '무사시 바이 아만(Musashi by Aman)'. 9 아틀리에 정찬을 제공하는 이르바(Arva)의 요리. 아만 도쿄 숙박객들의 아침 식사 장소이기도 하다. 10 황홀한 일몰로 유명한 로비층의 '더 라운지 바이 아만(The Lounge by Aman)'. 11, 12 도쿄 럭셔리 호텔 중에서도 최대 사실과 순도 높은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아만 도쿄의 스파 사실. 13 수려한 전망과 더불어 편안한 데이베드를 갖춘 수영장 ※1, 3, 6 photo by SY Ko

아만 도쿄(Aman Tokyo)

a true urban sanctuary

수년 전 세계적인 팝 스타 레니 크래비츠를 한 심페인 행사에서 접했는데,
그가 언젠가 '하고픈' 일로 자신이 디자인을 주도하는 호텔 프로젝트를 꼽았던 기억이 있다. 의외는 아니다.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실력뿐 아니라 사진, 디자인 등 다방면에서 재능을 드러내온 그가 반세기 넘도록
지구촌을 누비면서 늘 접한 공간이 바로 '호텔' 아니던가. 레니 크래비츠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늘길'을 자주
다니는 여행자라면 낯선 도시에서 처음 들어선 호텔의 환대가 그 도시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그 공간에서의 경험이 전체적인
여행 기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아만 도쿄(Aman Tokyo)는 그러한 좋은 예로 남을 만한 자격을 두루 갖춘 도심의 '안식처'다.
'자연 속 힐링'을 추구하는 럭셔리 리조트의 상징과도 같은 브랜드인 아만이 도쿄에서도 건조하기 짝이 없는 금융가의 마천루 숲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발상의 미학을 떠올리게 한다.

쇳가루 속의 사금 / 은빛 보리수 아래 동색 뱀 / 이것은 나무 요정의 수수께끼
이것은 너와 나의 이야기 _by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August Strindberg)

저마다의 위용을 뽐내는 고층 건물이 즐비하게 늘어선 도쿄 지요다구 오테마치의 한 길목에서 '초록'의 기운이 감지된다. 오테마치 타워로 불리는 38층짜리 건물을 배경으로, 언뜻 샐러리맨처럼 보이는 한 남성이 신문을 정독하면서 앉아 있는 벤치 주변을 고요하고도 해사하게 둘러싸고 있는 건 분명 작지만 짙은 신록이 드리운 숲이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절로 배경음으로 작동하는 '오테마치 포레스트(Otemachi Forest)'라는 숲이다. 도쿄역과 긴자 등과 가까운 경제의 심장부답게 하이테크 공법이 연상되는 늘씬하고 위압적인 건물이 밀집한 도회적인 풍경 사이로 숲을 품고 있다니, 과연 아만(Aman)이 선택한 장소답다. 사실 인적 드문 외딴섬이나 사막 같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뚜렷이 드러나는 천혜의 환경을 주로 택했던 이 명성 자자한 리조트 브랜드가 도심에, 그것도 인구밀도 높기로 유명한 도쿄 중심가에 호텔을 연다고 했을 때 아만의 많은 골수 팬들은 의아함과 궁금증을 동시에 품기도 했는데, 8년 전인 2014년 아만 도쿄가 공개되자 '역시 다르구나' 하는 반응이 주로 쏟아졌다.

아만의 '도시 호텔 1호', 생명력 넘치는 숲을 마당에 두다

실제로 아만이 일본 다테모노 그룹이 개발을 이끌며 2009년 착공한 현재의 건물에 입주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색조의 빌딩 숲 사이에서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는 오테마치 포레스트의 존재를 결정적인 여건 중 하나로 꼽았다고 한다. 아만 도쿄가 입성하기 10년 전부터 숲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지바현 수목원에서 미래의 도쿄 부지에 어울릴 만한 다양한 생태종의 실험을 통해 미리 숲의 모델을 만든 다음 나중에 이식 작업을 진행했다고. 그렇게 조성된 오테마치 포레스트는 상록수와 낙엽수, 야생화 등 무려 2백 종의 식물로 가득하다. '도쿄 사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대도시 중에서도 대기업, 통신사, 금융기관 등이 모여 있는 중심가에서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오아시스가 따로 없다. 호텔 자체는 오테마치 타워의 최상단 6개 층에 걸쳐 들어서 있지만 이 아담한(3,600㎡) 숲을 병풍처럼 두른 단층 건물이 야외에 별도로 자리하고 있는데, 아만 도쿄가 운영하는 프렌치 스타일 카페 '더 카페 바이 아만(The Café by Aman)'이다. 풀 내음 가득한 소담스러운 정원을 즐기며 차를 마시기에 안성맞춤인 사랑스러운 카페로, 숲과 더불어 아만 도쿄의 '본체'로 가는 길목에서 긍정적인 첫인상을 자아내는 데 쏠쏠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오테마치 타워는 지하 5개 노선을 낀 오테마치 역과 연결되어 있는데, 지하 아케이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갈 때도 역시 삭막한 콘크리트 대신 신선한 공기를 머금은 숲의 자태를 마주하게 되고, 운이 좋은 날에는 건물 안팎을 고루 감싸는 포근한 자연광의 세례나데도 느낄 수 있다. 디저트 애호가라면 지하 2층에 위치한 아만의 베이커리 '라 파티스리(La Pâtisserie by Aman Tokyo)'도 기억해둘 만하다. 완성도 높은 몽블랑을 비롯해 일류 파티시에의 솜씨가 돋보이는(투명한 창으로 만드는 과정을 볼 수도 있다)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데, 분주하게 움직이는 보행자들이 짬을 내 한 조각씩 '픽업'해 가는 모습도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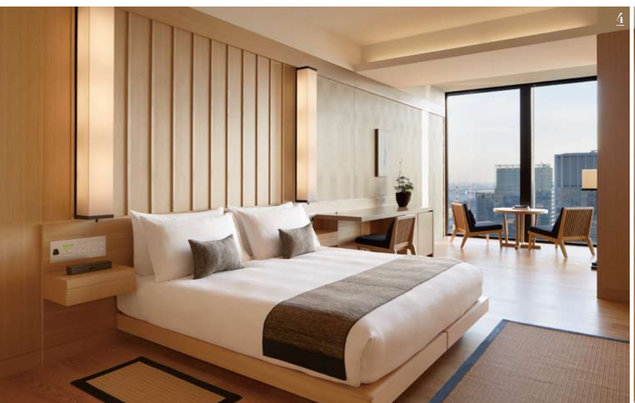
커다란 정원을 전망으로 품은 천공의 안식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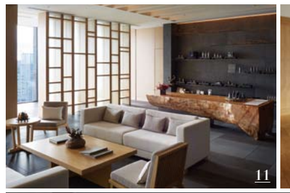
호텔로 올라가면 33층에 넓게 펼쳐진 로비 라운지에서부터 중대한 지분을 차지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매력을 이내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도쿄의 랜드마크를 한눈에 담아낼 수 있는 '전망'이다. 사실 이는 도쿄 도심에서 기막힌 포지셔닝의 역학을 선점해낸 소수의 럭셔리 호텔만이 지닌 발군의 장점이기도 하다. 흔히 '자본주의 불빛'이라 불리는 휘황찬란한 야경을 바룻해 내로라하는 건축물이 저마다의 오라를 뽐어내는 도시 풍경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놀라운 창조성 사이에서 묘한 기분이 들게도 하지만, 그 전망의 미학은 확실히 압권이다. 특히 아만 도쿄에서는 숨 막히도록 아름다운 일몰이 드리우는 로비층 라운지에서 바라보는 전망과 인근에 위치한 임페리얼 팰리스 가든의 수려한 조경을 내려다보는 일부 객실에서의 전망이 절로 감탄사를 내뱉게 한다. 베니스의 유서 깊은 바우어 호텔 출신인 히라키 마시카쓰(Masakazu Hiraki) 셰프가 끄는 이탤리언 레스토랑 아르바(Arva, 로비층)에서는 임페리얼 팰리스 가든과 후지산을 감상하며 미식을 즐길 수 있다. 우아한 절제미와 시원한 공간감을 동시에 품은 로비 디자인부터 치유의 감성이 제대로 스며든 객실(84개) 디자인 등을 총괄한 인물은 호주 건축가 케리 힐(Kerry Hill, 1943~2018). 아만 도쿄를 비롯해 아만 교토, 아만 코라(부탄), 아만 양윤(상하이) 등의 프로젝트를 이끌며 럭셔리 호텔의 문법을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 아만 도쿄에서도 지역의 문화와 역사, 환경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낸 케리 힐의 자연 친화적인 스타일은 유감없이 빛을 발했다. 거의 30m 높이로 솟아오른 채 로비의 중심을 잡아주는 커다란 설치물은 와시(washi, 화지)를 겹겹이 붙여 만들었는데, 햇빛이 들면 은은하게 반사되어 일본의 전통 종이 갓을 연상시킨다. 또 로비의 안락한 소파들 사이로 미야기현에서 가져온 왕관 바위 등으로 장식한 실내 정원도 자리한다. 객실은 고요한 안락함 그 자체다. 나무 바닥과 미닫이문, 다다미 등의 일본식 요소를 반영한 객실에 들어서면 빼어난 전망과 더불어 평안한 정적을 선사하기에 긴자로 쇼핑을 갈 것이 아니라면 굳이 외출을 원하지 않게 될 정도다(호텔 내 쇼핑 가능한 부티크도 있다).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블라인드, 내장형 TV 등 첨단 인프라를 세심히 갖추고 있지만 '기술'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특유의 안정적인 고요함은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도구를 굳이 찾도록 만들지도 않는다. 구수한 호지차와 함께 전망을 감상하다가 어느새 낮잠이 들거나 하노키 향을 그윽하게 풍기는 욕조에서 야경을 벗 삼아 느긋하게 즐기는 목욕만으로도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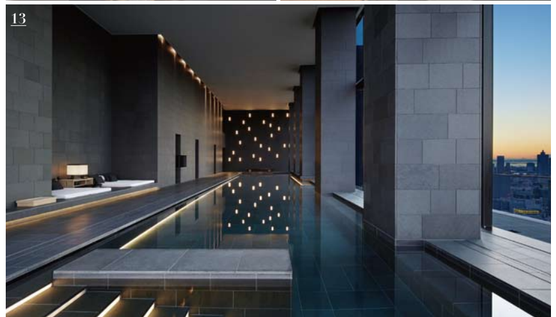
치유와 자기 성찰로 이끄는 '웰니스' 공간

이렇듯 그저 공간에 오롯이 집중하고 싶을 만큼 안락한 매력을 지닌 휴식처라면 긴장을 풀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는 자아 성찰로 이끄는 공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물론 어떤 공간도 심신의 치유를 책임질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일상의 균형을 찾아가도록 이끄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는 있다. 사실 누구나 웰니스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꾸려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스스로 강한 동기를 부여하기가 힘든 게 아니겠는가. 아만 도쿄는 '웰니스' 프로그램으로도 자부심이 큰데, 일단 도쿄의 유수 호텔 가운데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하드웨어'부터 남다르다. 넓고 푹신한 데이베드를 갖춘 아름다운 수영장과 24시간 열려 있는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도쿄의 명물 '스카이 트리'를 볼 수 있는 전망을 갖춘 휴게실 등으로 구성된 '아만 스파 도쿄' 시설이 2개 층에 걸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마법의 손길을 지닌 숙련된 마사지 테라피스트의 내공을 느껴보고 싶다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전문 스파의 메뉴도 구비되어 있다. 아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파 제품의 섬세한 품격도 느껴볼 수 있는 시설이다. 호텔 차원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꾸리는 필라테스 수업도 은근히 수요가 많다.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열마든지 프런트 데스크에서 요가 매트를 빌려 객실에서 스트레칭과 명상을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말이다.

산스크리트어로 '평화(peace)'를 뜻하는 브랜드명을 지닌 아만답게 이 공간에서 누리는 모든 여정에는 서두름과 긴장을 배제하는 느림의 미학이 깃들어 있다. 아마도 이처럼 치유 가득한 휴식을 지향하는 세심한 설계와 그 배경 속 철학이 아만을 단순히 '럭셔리 호텔+리조트'라고 부르기를 망설이게 하는 힘이 아닐까 싶다. 원래 '체험 경제' 시대에 호텔이 도시 여행자에게 어떤 궁극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공간을 찾아온 해외 방문객이 대다수였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내국인에게도 아만 도쿄의 매력이 많이 알려졌다는 후문이다. 정반대 개념처럼 보이는 것들조차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빌딩 숲 사이 천공의 안식처는 핀란드가 낳은 불세출의 건축가 알바르 알토가 '예술과 기술'의 상호 관계를 다루면서 인용한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시를 떠올리게도 한다. 글 **고성연**







Special for you

연말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뷰티 브랜드의 홀리데이 에디션 아이템이 대거 출시된다.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딥티크 홀리데이 컬렉션 센티드 캔들 네쥬** 88개의 별자리를 수놓은 천상의 지도로 꾸민 영롱한 패키지가 눈에 띈다. 헬리오트로프 꽃과 화이트 머스크를 조합해 부드럽고 포근한 향이 공간을 채운다. 190g 11만8천원. 문의 02-3446-7494 **에스티 로더 2022 홀리데이 갈색병 리미티드 에디션** 베스트셀러 갈색병을 강렬한 레드 보틀에 담았다. 여기에 리본 장식으로 사랑스러운 무드까지 더해 더욱 특별하다. 브랜드 노하우가 담긴 크로노룩스™ 파워 시그널 테크놀로지로 탄력 있는 피부를 선사한다. 50ml 17만5천원대. 문의 6971-3212 **나스 어데이셔스 립스틱 아바** 골드 컬러 케이스에 별 모양의 음각으로 디테일을 더했다. 나스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웜 베이지 셰이드로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선명한 발색감을 자랑한다. 4g 4만원대. 문의 080-564-7700 **끌레드뽀 보떼 더 세럼** 외뿔소 별자리가 그려진 네이비 컬러의 패키지는 끌레드뽀 보떼만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부각한다. 더 세럼은 피부 본연의 힘을 일깨워 광채 나는 피부결을 선사해준다. 50ml 30만원대. 문의 080-564-7700 **키엘 수퍼 크림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홀리데이 선물 맛집답게 베스트셀러 안티에이징 크림이 귀여운 패키징으로 변신했다. 탄력 강화, 주름 개선, 보습과 영양 등 피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만능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쫀쫀한 텍스처가 특징이다. 50ml 9만5천원. 문의 080-822-3322 **조 말론 런던 미드나이트 머스크 앤 앰버 코롱** 관능적인 미드나이트 머스크와 따뜻한 앰버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향. 스노볼이 떠오르는 실버 컬러의 보틀 캡이 홀리데이 분위기를 더한다. 100ml 22만원. 문의 02-6971-3228 **지방시 뷰티 윈터 드림 캡슐 컬렉션 프리즘 리브르 루스 파우더 N°12** 지방시의 시그너처 아이템인 루스 파우더가 메탈릭 패키지를 입었다. 라이트 핑크, 라일락, 바이올렛, 소프트 오렌지의 네 가지 파스텔 톤 파우더가 피부 톤을 화사하게 연출한다. 9g 9만6천원대. 문의 080-801-9500 에디터 **윤자경**

editor's Pick

눈부신 한 해의 마무리를 빛내줄
12월의 뷰티템을 엄선했다.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호텔도슨 엠블럼 카 디퓨저** 밀폐된 공간인 차량에 둬도 향이 과하지 않아 멀미가 나지 않고, 잔잔하게 발향된다는 점부터 합격. 시트러스 향과 포근한 파우더 향이 조화를 이뤄 깨끗한 비누 향이 떠오른다. 컬러는 베이지와 블랙, 두 가지로 출시되었다고 하니, 자동차 인테리어에 맞게 선택 가능할 듯. 1세트(케이스 1개+리필 1개) 12만원. 문의 02-3779-7244 *_by 에디터 윤자경*

로라 메르시에 치크 투 치크 틴티드 모이스춰라이저 블러쉬 듀오 사우스바운드 손끝에 소량만 짜서 볼에 부드럽게 발라주었더니 수채화를 물들인 듯 원래 내 혈색처럼 자연스러운 생기를 표현한다. 무엇보다 덧바르지 않아도 오랫동안 유지되는 지속력이 만족스러웠다. 가볍지만 생기 있는 메이크업이 필요할 때 제격. 15mlX2 5만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윤자경*

버버리 뷰티 페스티브 22 얼티밋 글로우 쿠션 20 페어쿨 텍스처가 가볍게 마무리되지만 시간이 지나도 들뜨지 않는다. 무엇보다 바르자마자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광이 피부 속부터 꽉 채워지는 느낌이다. 게다가 한정판 버버리 모노그램 패키징이라니, 무조건 소장각! 14g 8만8천원. 문의 080-850-0708 *_by 에디터 윤자경*

비디비치 밀레니얼 앰비언트 글로우 아이즈 #01 누디 글레어 연말이라 약속이 많은 요즘. 이 팔레트 하나면 과하지 않으면서 은은한 펄감의 아이섀도로 분위기 있는 홀리데이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파우더리한 질감으로 눈꺼풀에 끼는 현상이 적어 시간이 지나도 번짐 없이 유지되어 좋았다. 1.6gX6 6만5천원. 문의 1644-4490 *_by 인턴 에디터 신정임*

바니스뉴욕 뷰티 이듀엘라™ 립밤 클라우드베리 레드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그야말로 '인생 립밤'을 만났다. 입술이 워낙 건조한 편이기도 하고 각질을 뜯는 버릇 때문에 오전에 바른 립스틱이 다 지워지고 오후가 되면 초췌해지기 일쑤. 끈적임 없이 적당한 촉촉함은 물론 어떤 피부에나 잘 어울리는 은은한 장미 컬러까지 완벽하다. 무엇보다 슬림한 케이스로 요즘 유행하는 미니 백에 쏙 들어간다는 점 역시 매우 만족스럽다. 4.5g 2만5천원. 문의 1644-3456 *_by 에디터 성정민*

올라플렉스 No.4 본드 메인터넌스 샴푸 에디터는 올봄부터 머리를 기르는 중이다. 생머리가 축 처지는 느낌이 싫어 펌을 했더니 끝이 갈라지고 머릿결이 약해져 고민이었다. 동전 크기 정도만큼으로도 풍성한 거품이 생겨 등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도 문제없다. 모발 깊숙한 곳의 끊어진 결합을 다시 이어주는, 특허 받은 본딩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제품으로 머릿결 정리가 아닌 모발 내부를 꽉 채워주는 느낌이다. 250ml 4만3천원. 문의 080-363-5454 *_by 에디터 장리윤*

바이레도 아이즈 클로즈드 오드퍼퓸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향이라 표현하면 이 향에 대한 설명이 될까? 향수 이름처럼 바이레도 설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벤 고헴은 단순한 시각적 자극을 넘어 눈을 감아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가장 본능적이고 순수한 향을 담고자 했다고 전한다. 그래서인지 그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향이면서 몽환적인 느낌이 든다. 새로운 향을 찾아 헤매는 향수 유목민에게 추천한다. 100ml 35만원. 문의 02-3479-1688 *_by 에디터 성정민*

겔랑 홀리데이 아이 젤 글로스 로즈 골드 밋밋하고 메마른 얼굴에 은은한 빛을 얹어줄 글로스 제품은 트렌디한 연말 메이크업 룩에 필수다. 너무 끈적이거나 오일리하지 않아 눈 위에 얹어도 아이 메이크업이 번지지 않고 영롱한 반짝임을 더한다. 양 볼에 고급스러운 광을 더할 수도 있고, 입술에 사용하면 립밤으로도 손색없어 그야말로 만능 아이템. 4g 5만8천원. 문의 080-343-9500 *_by 에디터 성정민*

산타마리아 노벨라 이드랄리아 세럼 묽은 제형이라 몇 번의 롤링만으로도 쉽게 흡수되는 가벼운 세럼. 꾸덕하고 리치한 제형이 부담스러운 아침에 사용하기 좋다. 세 가지 크기의 3중 히알루론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유지시켜준다. 크림이나 마스크 단계 전에 사용하길 추천하는데, 극건성인 에디터조차 한 번 사용 시 5방울이면 충분했다. 30ml 8만2천원대.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장리윤*

하다라보 고쿠쥰 리프팅 밀크 최근 계절이 바뀌고 피부 톤과 탄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쯤 만난 제품. 크기가 다른 세 가지 히알루론산이 촉촉하게 스며들어 수분으로 꽉 찬 물광 피부를 연출한다. 수분과 탄력은 물론 미백까지 케어 가능해 피부 톤 변화와 속 땅김이 심한 요즘 날씨에 제격이다. 140ml 1만7천원대. 문의 02-717-1821 *_by 인턴 에디터 신정임*

EGF올로지 EGF 인헨싱 멀티 크림 수많은 멀티 크림을 사용해봤지만, 이 제품은 피부의 근본적인 원인에 전문적으로 다가간 듯한 느낌. 상처 치유와 주름 및 탄력 개선에 효과적인 EGF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 신뢰가 갔다. 피부 자생을 돕는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얇게 발라도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준다. 영양은 물론 속광까지 채워져 만족스럽다. 50ml 9만3천원. 문의 1644-1048 *_by 인턴 에디터 신정임*

랑방 모네끌라 EDP 둥근 조약돌 모양의 밝은 코랄빛 투명한 보틀 디자인에서부터 향기가 났다. 이 향수를 뿌리는 순간 살랑이는 바람에 섬세한 과일 향과 살짝 시원한 느낌의 알로에 베라 조금, 신선한 재스민 향이 어우러져 부드러운 살구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 잔향이 은은하게 남아 지속력도 좋다. 100ml 11만9천원대. 문의 080-800-8809 *_by 인턴 에디터 신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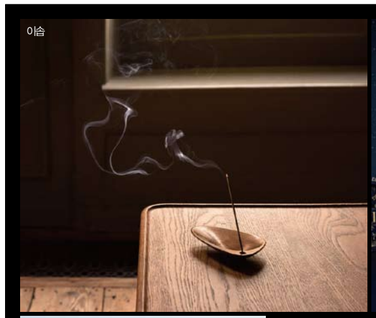
스무드무드 네일글라세 #Tete 입자가 큰 실버 펄을 아낌없이 담았다. 펄을 조금 떠서 컬러 네일을 바른 손톱 위에 톡톡 찍듯 바르니 은은한 느낌이, 펄을 한가득 손톱에 올려 듬뿍 바르니 반짝임이 극대화되어 또 다른 느낌이 연출된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실버 컬러로, 연말에 딱 필요한 아이템이다. 15ml 2만4천원. 문의 1644-7340 *_by 에디터 장리윤*

※ 장리윤(40대 건성), 성정민(30대 민감성), 윤자경(30대 복합성), 신정임(20대 지·복합성)

SHOWROOM

클라랑스

이솝



크리스챤 디올 뷰티

발몽

라프레리

크리스챤 디올 뷰티 2022 크리스챤 디올 뷰티 홀리데이 기프트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크리스챤 디올 뷰티 에서 벌을 사랑한 무슈 디올의 무드를 담은 2022 크리스챤 디올 뷰티 홀리데이 기프트를 선보인다. 디올 뷰티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구성한 이번 기프트 에디션은 황홀한 순간과 꿈이 꽃처럼 피어나는 순간을 선사한다. 전국 백화점 디올 뷰티 매장과 디올 뷰티 온라인 부티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80-342-9500

발몽 저스트 블룸 스위스 인터에이징 브랜드 발몽이 성공한 여성의 모습에서 영감받은 꼴레지오네 프라버타오 드 퍼퓸 컬렉션의 새로운 향, 저스트 블룸을 출시한다. 흙 내음이 나는 머스크 베이스에 새벽녘 투명한 이슬이 맺힌 듯 은은한 플로럴과 과일 향 베이스를 담은 저스트 블룸은 전국 백화점 발몽 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70-4352-5203

라프레리 긍정적인 환경 메시지를 담은 더글러스 맨드리의 그래비티 플로 스위스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라프레리에서 시간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라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예술과 과학을 접목한 더글러스 맨드리의 예술 설치 작품을 지원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묘사해 자연에 대한 인식을 작품으로 풀어내는 아티스트 더글러스 맨드리는 100% 재활용 유리로 제작한 작품, '그래비티 플로(Gravity Flow)'를 통해 인간이 자연환경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스위스 엥가딘산의 무오타스 무라이 봉우리에서 야외 전시한다. 문의 02-511-6626

클라랑스 2022 홀리데이 기프트 컬렉션 행복이 가득한 12월, 클라랑스에서 한 달간 다채로운 홀리데이 기프트 컬렉션을 선보인다. 클라랑스의 베스트셀러로 구성한 이번 컬렉션은 남녀노소를 위한 폭넓은 라인업을 자랑한다. 12월부터 전국 클라랑스 백화점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식 온라인 몰(www.clarins.co.kr)에서는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면 메시지 프린팅 서비스도 제공하니 놓치지 말자.
문의 080-542-9052

이솝 아로마틱 인센스 & 브론즈 인센스 홀더 출시 건강한 삶과 피부를 지향하는 호주 스킨케어 브랜드 이솝이 깊이 있는 아로마를 더한 '아로마틱 인센스'와 '브론즈 인센스 홀더'를 출시했다. 무라사키, 카끼로우, 사라사나 등 총 3가지로 선보인 아로마틱 인센스는 일본 인센스 공방에서 현대식 설비에 전통적인 블렌딩 기법을 접목해 세심하게 제작했다. 이번 신제품은 이솝 시그니처 스토어, 지정된 백화점 매장 및 공식 온라인 스토어(www.aesop.com)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800-1987

브라이틀링

브라이틀링 크로노맷 오토매틱 GMT 40 1백39년 전통의 스위스 럭셔리 워치메이킹 브라이틀링이 어떤 손목에나 스타일리시하게 착용할 수 있는 새로운 크로노맷 오토매틱 GMT 40을 출시했다. 국제 표준시인 그리니치 표준시에서 이름을 따온 크로노맷 오토매틱 GMT 40은 블랙 · 블루 · 그린 · 앤트러사이트 그레이 · 화이트의 다채로운 색상이 조화를 이루는 섬세한 다이얼 컬러가 전체 스틸 케이스 및 브레이슬릿과 어우러진다. 이울러 톤온톤 24시간 눈금을 적용해 레드 컬러의 GMT 핸즈로 제작했다. 이번 연말, 시간이 지나도 클래식함의 정수를 보여주는 크로노맷 컬렉션과 함께 다가오는 연말 스타일링을 완성해보자.
문의 02-792-4371

디올 파인 주얼리 디올 프린트 레이스부터 타이다이, 브레이드의 세계까지. 디올 파인 주얼리의 천문한 작품을 선보인 디올 주얼리 아티스틱 디렉터, 빅토아르 드 카스텔란이 주얼리 프린트 드로잉을 구현한 디올 프린트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디올 프린트 컬렉션에서 미치 오트 쿠튀르 의상처럼 화려하고 정교하게 제작한 다채로운 모티브의 1백37개 주얼리를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80-0104

티파니 티파니 X 앤디 워홀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1백85년 역사의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 티파니가 2022년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티파니 X 앤디 워홀 리미티드 에디션'을 공개했다. 1950~60년대에 앤디 워홀이 티파니를 위해 제작한 크리스마스카드에서 영감받은 이번 에디션은 앤디 워홀의 시그니처인 블로티드 라인과 워터 컬러 스타일로 재탄생해 티파니 홀리데이 카드, 오너먼트, 테이블웨어로 출시된다. 문의 02-6250-8620

다미아니 벨 에포크 릴 프랑스어로 '좋은 시대'를 뜻하는 벨 에포크(Belle Époque). 금세공 장인이자 다미아니의 창립자, 엔리코 다미아니는 천문했던 벨 에포크 시대를 기념하고자 벨 에포크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황홀했던 시대에 대한 찬사에 이어 기존 벨 에포크 컬렉션에 현대적인 무드를 담아 링 · 네크리스 · 이어링 · 브레이슬릿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문의 02-515-1924

해밀턴 레일로드 포켓 워치 아메리칸 스피릿과 스위스 시계의 정밀함을 구현하는 워치메이킹 브랜드 해밀턴에서 새로운 레일로드 포켓 워치를 선보였다. 레일로드 포켓 워치에는 미국의 정밀한 철도 시스템 시간 측정과 고급 마이크로 엔지니어링의 조합을 통해 탄생한 초기 시계의 독창적인 정신이 담겨 있다. 해밀턴의 유서 깊은 과거와 미래를 담은 이 타임피스는 9백17피스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문의 032-320-7559

에르메스 워치 에이치 아워 컬러 스톤 다이얼과 골드 케이스가 화려한 조화를 이루는 에이치 아워(Heure H)는 1996년 디자이너 필립 무케의 아이디어로 탄생했다. 시간의 흐름을 알파벳 'H'에 담아 선보인 메종의 대표적인 시계이기도 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연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제안한다.
문의 02-542-6622

스와로브스키 2022 어드벤트 캘린더 출시 1백25년 역사의 세계적인 크리스털 브랜드 스와로브스키에서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해 2022년 한정판 어드벤트 캘린더를 선보인다. 12월 한 달 동안 하루 한 칸씩 오픈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재미를 더한 제품인 어드벤트 캘린더에는 스페셜 오너먼트와 다채로운 크리스털 제품을 담았다. 일부 오프라인 매장과 스와로브스키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한정 수량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22-9065

프레드 홀리데이 시즌 스페셜 기프트 셀렉션 다가오는 연말을 기념해 프레드가 눈부신 주얼리 피스를 담은 스페셜 기프트 셀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셀렉션은 최근 출시한 프레드의 시그너처, 포스텐 XL 브레이슬릿부터 컬러 스톤을 세팅한 프리티우먼 네크리스까지 특별한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메종의 'Live the Joy' 정신을 담은 프레드의 홀리데이 스페셜 기프트 셀렉션과 함께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연말을 만들어보자.
문의 02-514-3721

티파니

디올 파인 주얼리

다미아니

해밀턴

프레드

브루넬로 쿠치넬리 밀라노에서 공개한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와인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 브루넬로 쿠치넬리가 이탈리아 움브리아 마을 솔로메오의 포도밭에서 생산한 첫 번째 와인 '본티지 2018'을 선보였다. 행잉의 캐시미어와 하모니의 포도밭에서 만든 최초의 와인 '카스텔로 디 솔로메오'의 탄생 여정도 함께 발표했으며, 수많은 저널리스트와 가족, 오랜 친구들이 만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의 02-546-6777

브루넬로 쿠치넬리

로로피아나 홀리데이 컬렉션 론칭 로로피아나에서 대자연의 무드를 담아낸 새로운 홀리데이 컬렉션을 선보인다. 브랜드의 삶과 패션에 대한 철학을 더욱더 스포티한 스타일로 풀어낸 이번 컬렉션은 자연의 컬러와 활동성을 높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로로피아나의 자체 기능성 소재 캐시스톰과 송이자죽, 울, 캐시미어 등 보온성 소재를 사용한 아우터, 니트웨어로 구성해 기후 변동이 심한 자연 속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6200-7719

루이 비통 2022 홀리데이 시즌 레고 쇼윈도 공개 루이 비통이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레고 공인 작가와 협업해 2023년 1월 1일까지 다채로운 크리스마스 쇼윈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홀리데이 쇼윈도 속 루이 비통 트렁크 타워는 레고 타일 판을 활용해 실제 트렁크 외형을 만들었으며, 루이 비통의 상징적인 다미에 패턴을 더해 루이 비통과 레고 플레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담았다. 이 기간에 루이 비통 메종 서울을 방문해 홀리데이 무드가 가득 담긴 루이 비통의 레고 쇼윈도를 감상해보자.
문의 02-3432-1854

몽클레르 몽클레르 마야 70 by 파렐 윌리엄스 몽클레르가 브랜드 탄생 70주년을 기념해 7명의 디자이너가 마야 재킷을 재해석하는 시리즈인 몽클레르 마야 70 협업을 선보였다. 11월 26일에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컬렉션인 몽클레르 마야 70 by 파렐 윌리엄스가 공개되었다. 파렐 윌리엄스는 몽클레르를 상징하는 로고를 새긴 도트 무늬로 브랜딩을 더해 마야 재킷을 새롭게 해석했다.
문의 080-311-0000

보테가 베네타 스몰 브릭 카세트 백 이탈리아 럭셔리 패션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에서 프리 스프링 2023 리조트 컬렉션을 통해 미니멀한 무드의 스몰 브릭 카세트 백을 공개했다. 보테가 베네타의 핸드백 컬렉션인 '카세트' 백 시리즈에 이어 스몰 사이즈로 탄생한 스몰 브릭 카세트 백은 램 스킨 소재를 사용해 가벼운 무게와 견고한 내구성이 특징이다. 화이트 · 블랙 · 리본 컬러로 선보이며 국내 단독 출시인 홀리데이 시즌 무드의 다크 그린 계열의 레인트리 컬러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8-7682

보테가 베네타

발렌티노 가라바니 르 트루아얌 럭셔리 오트 쿠튀르 브랜드 발렌티노가 '발렌티노 트윌 이코노그라프' 컬렉션을 통해 '르 트루아얌' 토트백을 선보인다. 메종의 상징, V 로고를 새롭게 해석한 트윌 이코노그라프 패턴으로 제작해 백의 보디부터 스트랩까지 부드러운 자카드 소재에 V 로고 패턴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세련된 블랙과 강렬한 레드, 총 2가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015-4655

발렌티노 가라바니

존스

존스 유통망 확장에 나선 존스 타임리스 클래식 하이엔드 브랜드 존스가 최근 약 188㎡(57평) 규모의 대형 플래그십 매장으로 스타필드 하남점을 개점하며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다. 매장 신규 오픈과 더불어 VIP 마케팅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소비자와의 소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02-3456-9392

구찌 영국 아티스트 해리 스타일스와 함께한 컬렉션 캠페인 공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탄생한 럭셔리 브랜드 구찌가 영국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 해리 스타일스와 함께 '구찌 하 하 하' 컬렉션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선보였다. 해리 스타일스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아-내셜 'H', 'A'를 조합한 컬렉션으로,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두 사람의 깊은 우정, 즐거움, 기존 남성 패션에 이빙가르드한 변화를 주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찌 하 하 하' 컬렉션은 구찌 공식 온라인 스토어(Gucci.com)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캠페인 영상과 이미지는 구찌 공식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와 구찌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2-3452-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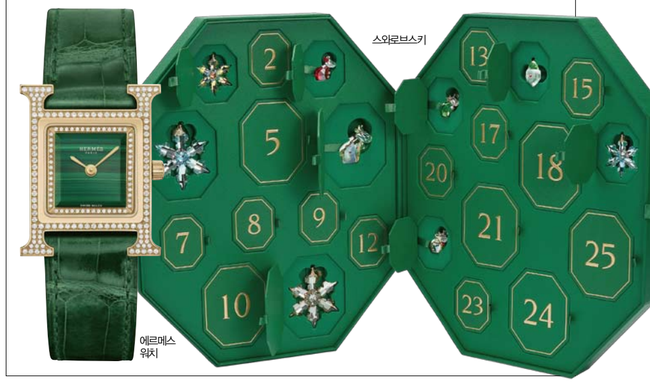
로로피아나

구찌

루이 비통

몽클레르

스와로브스키



에르메스 워치

LOUIS VUITTON